

조선후반기의 統制營 水軍操鍊圖 연구

—국립진주박물관 소장 《통제영 수군조련도》 병풍을 중심으로—

유 미 나 *

I. 머리말
II. 통영합조와 관련 兵書
III. 국립진주박물관 소장 《통제영 수군조련도》
IV. 《통제영 수군조련도》의 용도와 제작자
V. 맺음말

I. 머리말

‘통제영 수군조련도’는 통영에서 행해졌던 충청·전라·경상3도 수군의 합동 군사훈련의 장면을 그린 그림을 말한다. 거북선을 포함한 각종 전투용 선박들이 수백 척씩 규칙적으로 도열한 모습이 그려지고 수많은 인물이 훈련에 열중한 모습이 묘사되었다. 이는 수군의 훈련이라는 의미의 水操, 혹은 통영에서 행해진 3도 수군의 합동 훈련이라는 의미로 統營合操 라고도 불리었던 조선시대의 수군 조련의 장면이다.¹

통제영 수군조련도에 대해서는 1970년에 발견된 〈三道舟師都分軍圖〉(개인소장)에 대한 柳永博교수의 자료소개와 뒤이은 논문, 그리고 1998년 김재근교수의 논문이 있었다.² 또한 통제영

* 원광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조교수.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327-G00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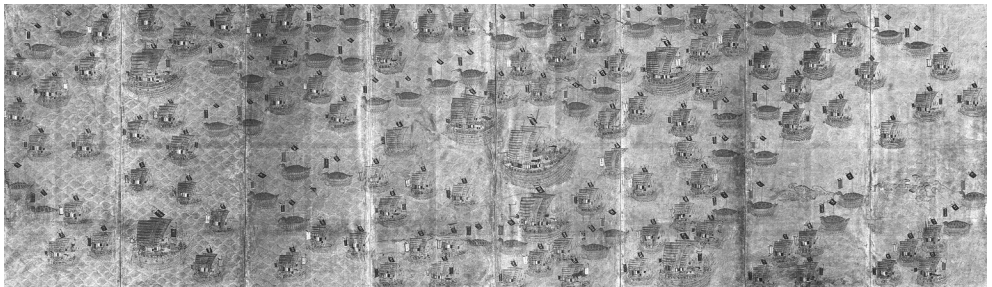
¹ ‘통제영수군조련도’의 명칭은 정조대에 간행된 『兵學通』권2에 수록된 圖說의 소제목 ‘統制營水操圖’에서 빌어 필자가 붙인 것이다. 현재 해당 유형의 그림은 소장처마다 ‘戰艦圖,’ ‘海陣圖,’ ‘水操圖,’ ‘龜船圖,’ ‘三道舟師都分軍圖’ 등 다르게 칭해지고 있어 명칭의 통일이 필요하다.

² 柳永博, 「三道舟師都分軍圖:新史料辨證」, 『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1970); 「三道舟師都分軍圖論攷」, 『문화재』 6호 (문화재관리국, 1972), pp. 64-87; 김재근, 「三道舟師都分軍圖에 대하여」, 『대한민국학술원논문집』 37(1998.9), pp. 29-50.

수군조련도의 작품 몇몇은 조선시대 해양방위사 연구에서 참조자료로 소개되었고, 근래에 꾸준히 이어진 임진왜란 및 이순신과 관련된 전시와 도록에도 소개되고 있어, 이들 작품에 대한 일반 및 학계의 인식이나 관심도 점차 증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 그런데 현존하는 통제영수군조련도의 작품 수는 이들 연구나 도록에 소개된 것 보다 훨씬 많아서, 본 연구자가 조사하거나 확인한 것만 20점이고, 그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표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작품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도상과 회화 양식을 다른 미술사적 고찰도 시도된 적이 없다.

《통제영 수군조련도》가 가장 활발하게 제작되었던 시기는 19세기말에서 20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며 이 시기의 대표작으로는 통영 충렬사 소장 《통제영 수군조련도》를 꼽을 수 있고, 20세기 중반 이후의 현대작들도 다수 있다. 그러나 제한된 지면에 이들 작품에 대한 논의를 모두 담지 못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통제영 수군조련도에 대한 연구의 첫 단계로서 국립진주박물관 소장의 《통제영 수군조련도》(덕2783)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도 1).

국립진주박물관 소장 《통제영 수군조련도》(덕2783)는 19세기 전반에 제작되었다고 여겨지며, 다른 작품들과는 도상과 회화 양식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조선시대 후반기 통영에서 행해졌던 수군의 합동훈련과 국립진주박물관 《통제영 수군조련도》와 관련된 兵書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어서 작품의 도상과 양식 특징, 그리고 작품의 제작시기와 용도 및 제작자에 대해서 차례로 알아보고자 한다. 19세기 후반 이후의 다른 《통제영 수군조련도》에 대해서는 후속의 연구 논문을 기약하고자 한다.



도 1 《통제영수군조련도》, 19세기전반, 기본채색, 153×521cm, 국립진주박물관(덕2783)

3 장학근, 『朝鮮時代海洋防衛史研究』(海軍士官學校, 1987); 『국립진주박물관 임진왜란』(국립진주박물관, 1997); 『새롭게 다시 보는 임진왜란』(삼화출판사, 1999); 『충무공 이순신-삶에서 신화까지』(국립진주박물관, 2003); 현충사관리소 편, 『충무공과 현충사』(현충사관리소, 2007); 『충무공 이순신과 임진왜란』(현충사관리소, 2011); 『임진왜란 7주갑 특별기획전, 임진왜란』(부산박물관, 2012).

표 1 《통제영수군조련도》 작품 목록

	작품명	규격	재질	진형	소장처	비고
1	戰艦圖 병풍 8 폭	153×521cm	지본채색	三道舟師疊陣	국립진주박물관	덕2783
2	戰艦圖 병풍 10 폭	168,2×486,4cm	견본채색	鶴翼陣	국립진주박물관	구덕수궁 6270-798
3	兵船圖 축 10 폭	120×40cm(10)	지본채색	鶴翼陣	국립진주박물관	구덕수궁 1636-169
4	해진도 병풍 10 폭	140,8×334cm	지본채색	一字陣	해군사관학교박물관	
5	水操圖 병풍 12 폭	137,5×336cm(2)	지본채색	尖字札陣	통영충렬사전시관	傳 鄭孝峴 畫
6	海陣圖 屏風 10 폭	110,5×398,0cm	저본채색	尖字札陣	해군사관학교박물관	재일교포 기증
7	해진도 병풍 12 폭	138,9×437,8cm	견본채색	尖字札陣	해군사관학교박물관	故박정희 기증
8	이순신수군도 병풍 10 폭	157×405cm	지본채색	尖字札陣	인천광역시립박물관	
9	三道舟師部分軍圖 축 1 폭	141,5×97cm	견본채색	尖字札陣	개인소장	
10	史話圖(龜甲船圖) 병풍 10 폭	114,2×404cm	견본채색	尖字札陣	금곡박물관	『李朝の民畫』
11	통제영수군조련도	136,5×355cm	지본채색	尖字札陣	서울대박물관	
12	해진도병풍 8 폭	63,8×280,7cm	지본채색	변형	현충사 전시관	宜卿, 書 小游印
13	귀선도 병풍 10 폭	112,7×410,8cm	지본채색	尖字札陣	경기대학교박물관	1422
14	귀선도 병풍 10 폭	108×450,3cm	견본채색	변형	경기대학교박물관	1423
15	귀선도 병풍 8 폭	101,7×371,8cm	지본채색	변형	경기대학교박물관	1424
16	忠武公砲戰圖 10 폭	418×158cm	견본채색	鶴翼陣	개인소장	서울옥선도록
17	水操圖 액자 1 폭	미상	지본채색	변형	통영문화원	김문환 畫
18	海陣圖, 병풍 10 폭	미상	지본채색	尖字札陣	개인소장	KBS 진품명품
19	거북선도 화첩 8면	각 27,5×18,5cm	지본채색	변형	육군사관학교박물관	
20	三道水軍 聯合操鍊 圖 屏風	113×350cm	견본채색	尖字札陣	세종대학교박물관	

II. 統營合操와 관련 兵書

16세기 말의 임진왜란은 왜군의 침략에 명나라와 연합하여 대항했던 조선으로서는 유례가 없는 대규모 국제전이었다. 명장 이순신이 이끈 수군의 혁혁한 戰功으로 왜군의 일방적 공세를 저지시켰고 호남의 곡창지대를 보전함으로써 상대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전세를 역전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조정에서는 수군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수군 정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전쟁 후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軍役자원과 戰船의 확보에 힘썼으며, 주변지역 병력을 요충지에 집중시키는 添防의 실시, 水軍鎭의 정비 등이 이루어졌다.⁴ 이러한 수군체제의 정비는 임진왜란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전술체제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시행된 것이었다.

임진왜란 이전 조선은 道 단위의 鎭管體制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各道 水使가 책임 해역을 방어하는 전술적 독립체제로서 기존의 소규모 해적단인 왜구를 방어하는데 적합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과 倭 그리고 명까지 참전하여 국제전의 양상을 보였던 임진왜란은 대규모 船團을 운용한 기동항해전술 체제로 전환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⁵ 기동항해전술이란 전쟁이나 전투 수행에서 적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기동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전술로서 이를 위해서는 여러 선단을 통제하고 효과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였다. 또 이를 일사분란하게 지휘하기 위해 전 수군을 통솔하는 지휘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해 1593년에 설치된 것이 統制營이고, 그 수장이 統制使였다.⁶ 임진왜란 직후 對日 해방전략의 기본지침은 부산 앞바다에 수군선단이 신속하게 집결하여 해상에서 적을 막고, 2차적으로 통제영수군이 지원하는 방향이었다. 이러한 전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상 좌·우수영 소속의 수군을 비롯한 三道 수군 船團의 긴밀한 상호협력이 필요하였다. 이에 2개 이상의 水軍節度使營

4 이은호, 「임진왜란 직후 조선의 대일 방어대책과 水軍」(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p. 14-28; 송기중, 「17世紀 水軍防禦體制의 改編」, 『朝鮮時代史學報』 53(朝鮮時代史學會, 2010), pp. 9-21.

5 장학근, 『朝鮮時代海洋防衛史研究』(海軍士官學校, 1987), pp. 217-218.

6 『선조실록』: 『增補文獻備考』 권234, 職官考 外武職條, ‘仍陞除統制使 管三道舟師 統制之號如此 朝議以三道水軍不相統攝.’ 통제사 설치에 대해서는 방상현, 「수군통제사연구」, 『국사관논총』 17(1990) 참조.

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합동훈련, 즉, 습操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⁷

수군의 합동조련은 삼도수군통제영이 설치되면서부터 행해졌다고 추정되지만, 통영합조는 선조 37년(1604) 삼도수군통제영이 두룡포로 移陣되어 새롭게 변창하면서부터 체계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했다고 여겨진다. 통제영 초기의 실정은 제 7대 통제사 李雲龍의 1605년의 秋操와 1606년의 春操에 대한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⁸ 통제사 이운룡이 ‘戰船에 올라 標下 三道의 전선 20여척을 거느리고 수조를 행했다’는 기록은 삼남합조를 행한 사실을 언급한 가장 이른 기록으로 주목된다. 官撰 문헌에서 확인되는 가장 이른 기록은 인조 7년(1629)이다(표 2).⁹ 또한 이 무렵 수군 조련이 매년 봄·가을에 설행되는 것으로 정례화 되었던 것을 인조 14년(1636) 『승정원일기』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¹⁰ 이러한 체제는 『만기요람』이 찬집된 19세기 초까지 이어졌

7 張元柱, 「17세기 朝鮮의 海防體制와 水操運用」(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2), pp. 15-16. 수군 조련에 관한 연구는 張學根, 「조선 후기 水操와 防衛船團編制」, 『단국대학교대학원학술논총』 9, 1985; 張學根, 『朝鮮時代海洋防衛史研究』(海軍士官學校, 1987); 方相鉉, 『朝鮮初期 水軍制度』(민족문화사, 1991); 李敏雄, 「17~8세기 水操 運營의 一例 考察-규장각 소장본 慶尙左水營 『水操笏記』를 중심으로-」, 『軍史』 38(1999); 나중우, 「조선수군의 무기체계와 전술 구사」, 『한일관계사연구』(1999); 노영구, 「『兵學指南』에 나타난 조선 후기 水軍의 전투 훈련」, 『문헌과 해석』 23(2003); 정진술, 「조선 水軍의 戰術신호 체계에 대한 연구」, 『해양연구논총』 38(2007); 노승석 국역, 「수군조련[水操]」, 『이순신연구논총』 통권 제12호(순천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09년 가을/겨울); 김병륜, 「조선시대 水軍 진형과 함재 무기 운용」, 『군사』 74(2010); 장원주·최형국, 「18세기 末 전라도 水軍戰法 變化의 특성-전라우수영 『戰陣圖帖』과 전라좌수영 『水操笏』을 중심으로」, 『武道研究所誌』 제22집 제1호(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2011), pp. 59-72; 장원주, 「17세기 조선의 海防體制와 水操運用」(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논문, 2012); 김우진, 「18세기 경상좌수영 군례악 연구(1)-규장각 소장 水操笏記에 기하여」, 『한국음악사학보』 49 권(한국음악사학회, 2012), pp. 109-141.

8 李雲龍, 『息城君實記』 권3, 「追錄」, 居營日記, ‘乙巳(1605) 10월 13일, 廣伊洋中 操鍊.’; ‘丙午(1606) 5월 29일, 乘戰船 率 標下三道戰船二十餘隻水操.’(『國譯 息城君實記』, 지강서원, 1991; 金一龍, 「統營城 城操 연구」, 『統營文化院 郷土史叢書 第12輯 통영향토사 연구 논문집』, 통영문화원, 2011, p. 216에서 재인용).

9 ‘습操’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은 『승정원일기』, 인조 7년 12월 15일(乙丑), ‘…而第其合操之舉, 必有海邑軍民難支之弊, 臣等之言令各其本道合操…’ 합조의 개시 시점에 대해서 기존에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장학근은 합조의 개시를 숙종 21년(1695)으로 보았다. 통제영이 1593년에 설치되고 통어영이 1633년에 설치되어 합조를 할 수 있는 체계는 이루어졌으나 군액의 不充, 병선의 不備로 충실한 합조를 하지 못했다가, 숙종의 해양방위력 강화조치에 따라 명실상부한 합조가 가능케 되었다고 본 것이다. 장학근, 앞의 책, p. 236; 이만웅은 통제영합조가 현종 원년(1660) 이전 어느 시기부터 시행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이만웅, 앞의 논문(1999), p. 61; 장원주는 임란 당시 삼도수군통제영이 설치되면서부터 이미 합조가 시도되었다고 보았지만, 인조 16년(1638) 巡檢使任統의 장계를 근거로 17세기 중반부터 통제영합조가 형성되었고, 17세기에 가장 활발히 시도되었다고 보았다. 장원주, 앞의 논문(2012), pp. 16-20. 그러나 이에 앞서는 이운룡의 기록에 의거하여 1604년 통제영의 이진 이후 합조가 설행되기 시작하였음을 이 연구에서 확실히 하고자 한다.

10 『승정원일기』, 인조 14년 8월 5일, ‘水操之期, 在於每年春秋, 春則二三月, 秋則八九月, 非但農務之時, 方當賊來之日. 近年以來, 南警暫息, 事若無虞, 然亦不可(不)無陰雨之備, 臣等竊愍焉, 何者? 全羅左水使令其所管各官各浦, 前期二旬之間, 發船會于統營, 統營乃慶尙道地也. 合操於統營前洋, 往來之間, 已過月餘, 民間失農之冤極矣.’

고, 통제영이 폐지되는 고종 32년(1895)까지 지속되었다(표 2).¹¹

표 2 三南지방 수군조련의 실행 내용

일자	연도	삼남지방 수조의 시행 내용	출전	비고
인조7.12.15	1629	水軍合操 운운	승정원일기	
인조8.01.21	1630	三道合操에 대해 하유	"	
인조14.08.05	1636	合操於統營前洋	"	
인조15.07.07	1637	8월에 합操	"	
인조16.01.05	1638	春·秋操를 가덕 앞바다에서 시행	"비변사등록	
효종5	1654	충청도 봄 水操 시행(60명 익사사고)	비변사등록 효종5.4.26	
현종1. 01.15	1660	三南合操는 정지, 各營前洋操鍊	"	
현종8. 02.06	1667	合操 시행	"	
현종8. 07.27	1667	秋操 정지	"	
현종9. 01.30	1668	春操 정지(흉년)	"	
현종9. 08.09	1668	秋操 실시	"	
현종10.07.21	1669	秋操, 該營前洋(통제사유고)	"	
숙종1.02.06	1675	합조 3월20일에 실시	"	
숙종3.07.24	1677	합조 정지	"	
숙종4.03.26	1678	합조 실시,	"	익사사고(백여명)
숙종4.07.18	1678	충청·경상 秋操 및 明春水操 정지	"	
숙종13.02.13	1687	兩南舟師春操 정지, 영남좌우도 합조설행, 兩湖(전라도·충청도) 各其前洋行操	(비변사등록 영조25.1.27)	
숙종20	1694	兩南合操 실행	(비변사등록 영조37.2.2)	
숙종21.01.13	1695	今春 통영합조 정지 & 水營 春操 정지(三南 巡撫使 巡歷과 상치)	"	
숙종28.01.22	1702	통영춘조 정지	"	
숙종28. 가을	1702	통영추조 정지(흉년)	"	
숙종29.01.22	1703	통영춘조 정지	"	
숙종30.07.27	1704	추조는 시행, 명년 춘조는 정지	"	
숙종32.02.11	1706	통영합조 정지	"	
숙종33.08.04	1707	추조 실시	"	
숙종34.01.24,29	1708	춘조 정지	"	
숙종36.02.18	1710	춘조 정지	"	
숙종38.02.03	1712	춘조 정지(흉년)	"	兩南船師合操停止者, 至於十九年之久
숙종39.02.24	1713	춘조 정지	"	
숙종39.08.12	1713	추조 실시	"	

¹¹ 장학근, 앞의 책(1987), p. 237; 정해은, 『한국 전통 병서의 이해(II)』(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 333. 『萬機要覽』軍政編一, 備邊司, 軍操, '春則二月 秋則八月內設行 三南, 京畿水操 春則合操 秋則各其前洋設行 而或合操停止 而只行前洋操.'

숙종40,08,08	1714	추조 정지	"	三南水陸操, 近因年凶停廢矣
숙종41,10,15	1715	호남 추조 실시	"	
숙종44,07,15,25	1718	충청 추조 정지, 경상 추조 실시	"	
숙종45,01,24	1719	춘조 정지(전염병)	"	
숙종45,07,15	1719	추조 실시	"	
숙종46,02,17	1720	춘조 정지	"	
경종3,01,26	1723	22년 추조 정지(홍년), 23년 춘조 정지	"	
경종3,07,22	1723	추조 실시	"	
영조1,02,01;18	1725	합조는 정지, 추조 실시	"	
영조3,02,15	1727	1726년 추조 중지, 1727년 춘조 실시	"	
영조4,02,28	1728	춘조 정지	"	
영조7,08,12	1731	합조 정지	"	
영조8,07,23	1732	삼도 수군의 추조 정지	"	
영조9,01,26	1733	통영합조 정지, 水營의 前洋習操도 정지	"	
영조9,07,25	1733	추조 정지(홍년, 전염병)	"	
영조10,07,15	1734	추조 실시	"	
영조11,01,19	1735	합조 정지, 前洋習操 실시	"	合操之不行, 至於四十餘年... 辛壬慘凶之餘, 民間尙未蘇殘
영조12,01,16	1736	합조 정지.	"	春合操之停廢, 今至四十餘年
영조13,07,21	1737	추조 정지(호서, 호남 좌우)	"	
영조13,07,29	1737	추조 정지(영남)	"	
영조14,07,16	1738	추조 정지(충청, 전라우도), 추조 실시(전라좌도, 경상우도)	"	
영조14,08,02	1738	경상좌도 추조 정지, 경상우도 추조 시행	"	
영조16,01,19	1740	통영합조 정지	"	統營合操之不設, 今至四十六年矣
영조17,01,27	1741	통영합조 정지	"	三道合操之不行, 今至四十八年之久
영조17,02,08	1741	1740년 추조 전양수조 실시, 三南 前洋水操 정지	"	
영조17,08,12	1741	추조 실시	"	
영조18,01,21	1742	합조 정지	"	
영조18,07,17	1742	추조 정지	"	
영조21,01,24	1745	합조 정지	"	
영조21,07,28	1745	추조 실시	"	
영조22,01,27	1746	합조 정지, 前洋水操 정지	"	合操之停廢, 今至五十餘年之久
영조23,01,30	1747	춘조 前洋水操	"	本營水操, 自甲戌以後, 不爲舉行

영조25,01,27	1749	춘조 各道舉行	"	三道合操之停廢, 已至五十年, 丁卯年嶺南左右道舟師合 操於閑山前洋, 兩湖則各其前洋行操矣
영조30,07,25	1754	삼남 추조 시행	"	
영조33,09,20	1757	추조 시행	"	
영조34,01,16	1758	춘조 各其營行操	"	
영조37,02,02	1761	합조 정지, 전양수조 정지	"	兩南舟師春操, 則合設於本營前洋, 秋操, 則各其水營設行, 已有定 式, 而丁卯春嶺南左·右道 合設, 兩南合操 二去甲戌年 設行後, 因朝令停廢, 今至 六十九年之久
영조37,07,22	1761	추조 정지(홍작)	"	
영조38,07,07	1762	추조 정지	"	
영조39,07,15	1763	추조 정지	"	
영조40,01,18	1764	합조·前洋水操 정지	"	
영조40,07,15	1764	양남은 각 도에서 실시, 호서는 정지	"	
영조41,01,14	1765	합조, 전양수조 정지	"	
영조41,07,15, 08,01	1765	추조 실시	"	
영조43,윤07,06	1767	충청 추조 정지	"	
영조44,01,18	1768	합조와 각조 모두 정지	"	
영조45,07,17	1769	추조 정지	"	
영조46,07,17	1770	추조 시행	"	
영조47,01,15	1771	춘조 각기 前洋 시행	"	三道合操舉措甚大, 近百年未行之事
영조47,07,14	1771	추조 정지	"	
영조50,01,13	1774	합조, 각조 정지	"	
영조50,07,06	1774	추조 정지	"	
영조51,01,15	1775	춘조 各其前洋設行	"	
영조51,07,16	1775	各其前洋設行	"	
영조51,08,05	1775	전라 추조 정지(홍역)	"	
정조즉위년	1776	통영과 三南 秋操 設行	(비변사등록 정조3, 01,11)	統營與三南, 丙申秋操後, 更未設行
정조1	1777	춘·추조 정지	"	
정조2,07,20	1778	今秋 三南 水操 정지	"	
정조3,01,11	1779	통영합조, 삼남수조 정지	"	
정조3,08,15	1779	수조정지	"	
정조4,01,17	1780	춘조 정지	"	統營水操之停止俱爲三年
정조4,07,14	1780	추조 各其前洋設行	"	湖南水操後, 以軍卒之滄沒 (비변사등록 정조4,12,27)

정조5,07,14	1781	추조 정지	"	
정조6,01,17	1782	합조 정지(재해)	"	
정조6,07,16	1782	추조 정지(가뭄, 장마)	"	
정조7,01,16	1783	통영합조 정지	승정원일기	
정조7,07,12	1783	추조 정지	승정원일기	
정조8,08,10	1784	추조 정지	승정원일기	
정조9,01,10	1785	합조 정지	승정원일기	『兵學通』간행
정조11,01,15	1787	춘조 정지	승정원일기	
정조11,07,27	1787	추조 정지	비변사등록	
정조12,07,14	1788	추조 정지	"	年年停操, 或至十餘年之久
정조13,01,10	1789	춘조 정지	"	
정조13,07,23	1789	추조 정지	"	
정조14,07,18	1790	추조 실시	"	추조 후 기장의 戰船 致敗 (비변사등록 정조14,09,25)
정조20,07,27	1796	추조 실시	"	
정조21,07,15	1797	추조 정지	"	
정조22,07,12	1798	추조 정지	"	
정조24,01,20	1800	춘조 정지	"	
순조1,01,20	1801	춘조 각기전양설행	"	
순조1,02,16	1801	山北육6처는 춘수조 정지	"	
순조1,07,19	1801	추조 정지	"	
순조2,01,14	1802	춘조 정지	"	
순조2,07,12	1802	삼남 추조 실시	"	
순조2,08,06	1802	전라좌우수영 및 산북 今秋 수조 정지	"	
순조3,07,18	1803	수조 정지	"	
순조4,07,12	1804	춘조는 이미 정지, 추조 정지	"	
순조5,01,09	1805	춘조 각기전양설행	"	
순조5,01,13	1805	수조 정지(국홀)	"	
순조5,07,10	1805	추조 정지	"	
순조6,01,13	1806	통영합조 정지, 각기전양설행, 호남우도 수조 정지	"	
순조6,07,13	1806	추조 정지	"	
순조7,01,10	1807	통영합조 정지, 각기전양설행	"	
순조7,07,10	1807	가을 수조 정지	"	
순조7,08,03	1807	산북6읍진 수조 설행	"	
순조12,01,06	1812	춘조 정지	"	
순조12,07,16	1812	추조 정지	"	水陸諸操, 連五年停行,
순조24,07,12	1824	영남 우수영 수조만 설행	"	
순조27,07,11	1827	추조 정지	"	水陸操之停闕, 今爲幾十年矣
헌종7,01,14	1841	영남우수영 수조만 설행, 나머지는 정지	"	
철종11,07,12	1860	추조 정지	"	歲再蒐補有國詰戒之大政, 而挽近停闕已久, 殆不知水 操陸操之爲何事, 委屬可悶

수군 훈련의 절차는 『兵學指南』과 『兵學通』 등 조선후기 간행된 兵書에 비교적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병학지남』은 명나라 장수 戚繼光(1528-1588)이 편찬한 『紀效新書』에서 군사 조련에 관한 내용을 뽑아 조선의 실정에 맞게 엮은 책으로 조선후기의 가장 대표적인 군사 훈련서였다. 최초로 편찬된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선조 말년 무렵인 1600년 전후로 보고 있고,¹² 이후 군사 편제나 조련에 시급히 활용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군대 상황에 맞게 여러 형태로 다시 변형되어 유포되었다. 이런 이유로 판본이 다양하고, 本에 따라서 그 수준이 천차만별이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¹³ 더구나 『병학지남』에 실린 훈련법의 내용은 자세하지 않아서 군영마다 적용하는 훈련법에 차이가 났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아 훈련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에 조선의 군사훈련의 강령을 정하고 통일시키기 위해 기획된 것이 『병학통』이었다. 『병학통』은 정조의 어명을 받들어 張志恒(1721-1778)이 彙輯한 것을 1785년에 重刊한 병서로서 병자호란 이후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던 오위전법과 기병 전술을 보완한 조선 후기 군사 훈련서의 결정판이었다.¹⁴ 場操·城操·夜操·水操 등 각종 군사 훈련법이 망라되어 있는데, 수군 훈련법을 제시한 水操의 경우는 내용이 『병학지남』과 대동소이하다. 정조는 『병학통』을 전국에 반포하면서 각 영의 습진 및 남한산성의 성조와 통제영의 수군 훈련 모두 『병학통』을 따르도록 규정하였다.¹⁵

이 외에 조선왕조의 재정과 군정 상황을 담은 『만기요람』에도 수조절차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참고가 된다.¹⁶ 이들 병서 외에 보다 실질적으로 훈련에 활용되었던 것은 ‘수조흘기류’로 통칭되는 책 혹은 문서들이었다.¹⁷ 이들은 휴대하기 편리하게 첩책해서 만든 일종의 휴대용 훈련지침서이다.¹⁸ 현재 12점이 알려졌는데, 이들은 각기 다른 지역 및 水營에서 수군훈련을 실시하면서 사용하였던 훈련 절차를 기록한 것으로서 책마다 내용의 가감이 있어 수군 훈련의 실상을 더

12 노영구, 「조선후기 군사 조련의 기본서, 『병학지남』」, 『정조대의 예술과 과학』(문헌과 해석사, 2000), pp. 213-216; 정해은, 앞의 책(2008), p. 334.

13 이런 이유로 정조 11년(1787년) 기존의 여러 본을 교정하여 『병학지남』 正本이 간행되었다. 정해은, 앞의 책(2004), pp. 219-220.

14 정해은, 위의 책, pp. 198-208.

15 『정조실록』 권20, 정조9년9월 을해; 정해은, 위의 책, pp. 334-335.

16 『만기요람』은 1808년에 徐榮輔·沈象奎 등이 순조의 명을 받들어 撰進한 책으로 18세기 후반기부터 19세기초에 이르는 조선왕조의 재정과 군정 상황이 조사·수집된 국정 편람서이다. 정해은, 위의 책, p. 39.

17 이들은 제목이 ‘水操笏記,’ ‘水操節次,’ ‘水操程式’ 등 다양하게 쓰였는데, ‘수조흘기류’라는 제목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수조흘기류로 통칭되고 있다. ‘흘기’란 의식이 진행되는 순서 및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정해은, 위의 책, p. 335.

18 이민웅, 앞의 논문(1999), pp. 57-58.

욱 세밀하게 고찰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¹⁹

이상 수군 조련의 절차에 대한 병서와 수조흘기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 가운데 국립진주박물관 《통제영수군조련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병학통』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국립진주박물관 소장 《통제영 수군조련도》에 그려진 선단의 陣形이 ‘三道舟師疊陣圖’라는 진법도를 따른 것으로 이는 『병학통』에만 수록된 것이기 때문이다. 『병학통』, 「水操」편에는 수군조련의 절차를 20개의 항으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훈련 중에 연습하는 陣圖 8가지를 제시하였다.²⁰ 이 가운데 마지막 진법도가 삼도주사첩진도이다.

이상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해방체제가 기동항해전술체제로 바뀌었고, 이를 위해 통제영이 설치되고 삼도수군의 합조가 시행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수군합조의 절차와 훈련 陣形에 대해서 수록한 주요 병서로 『병학지남』, 『병학통』, 각종 수조흘기류가 있다. 국립진주박물관 소장 《통제영 수군조련도》는 이 가운데 『병학통』의 「통제영 수조도」편에 있는 ‘삼도주사첩진도’의 진법도를 취하여 화면을 구성한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국립진주박물관 소장 《통제영 수군조련도》의 구성과 ‘삼도주사첩진도’의 진법도를 비교하여 그 관련성을 설명하고, 이어 《통제영 수군조련도》의 도상과 회화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Ⅲ. 국립진주박물관 소장 《통제영 수군조련도》

국립진주박물관 소장의 《통제영 수군조련도》(덕2783)는 대형의 8폭 병풍으로 크기는 153×521cm이고 종이 바탕에 채색을 사용하여 그렸다. 이 그림에는 140 척에 달하는 크고 작은 軍船과 수많은 將卒들이 黃·紅·靑·綠·白·黑의 채색으로 묘사되었다. 화면 속에 軍선들이 고

¹⁹ 통제영에서 쓰이던 것은 『軍點笏記』(해군사관학교박물관, No.71-584)·『壬辰稅』(해사박물관, No.71-366)·『水操笏記』(해사박물관, No.71-772)·『水操笏記』(백석주 소장본, 현 소장처 미상)·『水操筋次』(해사박물관)이다. 경상좌수영에서 제작·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水操笏記』(서울대 규장각), 전라우수영에서 사용되었던 『戰陣圖帖』(고금도 충무사), 전라좌수영에서 사용되었던 『水操笏』(좌수영박물관) 등이 있다. 수조흘기류에 대한 연구는 李敏雄, 앞의 논문(1999)을 필두로 정해은, 앞의 책, pp. 333-422; 김병륜, 「수조규식」(한국의 병서 39), 『국방일보』(2008년 11월 4일자 6면); 김병륜, 「수조요람」(한국의 병서 23), 『국방일보』(2008년 12월 24일자 6면); 김병륜, 「수조흘」(한국의 병서 84), 『국방일보』(2009년 9월 23일자 6면); 노승석 국역, 「수군 조련[水操]」, 『이순신연구논총』 제12호(2009년 가을/겨울), pp. 263-357; 김병륜, 「조선시대 수군 진형과 함재 무기 운용」, 『군사』74집(2010), pp. 146-153; 장원주·최형국, 앞의 논문(2011) 등에서 논의되었다.

²⁰ 『병학통』, 「水操」에 제시된 훈련절차는 懸牌-發哨船-列營-升船廳-招官旗-官哨發放-舵線碇隊長發放-官旗下地方-升旗起操-看賊船作戰-整回船-下方營-發樵汲-查功罪-收樵汲-落旗懸燈-發放夜瞭-遇賊船-查功罪-散操歸港.

르게 퍼져 있어 어수선히 보일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 『병학통』 중의 ‘삼도주사첩진도’를 형상화시킨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국립진주박물관 소장의 《통제영수군조련도》에 그려진 진법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그림에 묘사된 軍旗와 기물, 인물, 파도문 등의 도상과 양식 특징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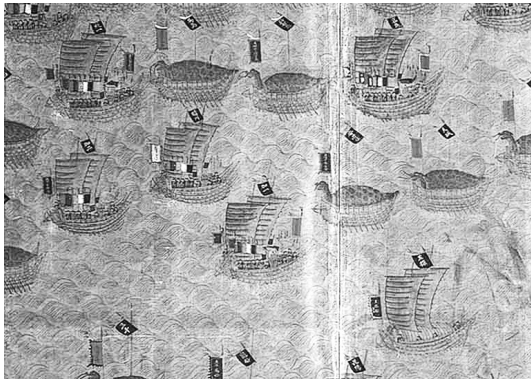
1. 三道舟師疊陣圖의 형상화

국립진주박물관 소장 《통제영수군조련도》에 묘사된 각 군선은 저마다 軍旗를 갖추고 있고 그 군기에는 선단체제에서의 위치와 소속 邑鎭이 명기되어 있다. 예를 들면 ‘前司把總加德’이라는 군기를 통해 이 군선이 中營 예하 前司의 우두머리로서 가덕 소속의 군선임을 알 수 있고, ‘左哨官安骨浦’는 같은 전사의 左哨官으로 안골포에서 온 군선이다(도 2). 이들 군기에 기록된 내용을 정리하면 군선들이 취한 진형과 삼도수군의 편제를 파악할 수 있다. <표 3>에 그 내용을 정리하였는데, 座船·副船·左右斥候船·左右探船·左右翰船 및 소속 편대, 그리고 중영·전영·좌영·우영·후영 등 五營 소속 군선들의 편제를 볼 수 있다(표 3)

이를 보면 삼남 수군의 편제는 오영 체계로서 慶尙右水使를 겸직하고 있는 三道水軍統制使를 中營으로 하고, 全羅左水營이 前營, 慶尙左水營이 左營, 全羅右水營이 右營, 忠淸水營이 後營을 이룬다. 각 영 밑에 中司·前司·左司·右司·後司 등 五司를 두었고, 각 司 밑에 中哨·前哨·左哨·右哨·後哨 등 五哨官을 두었다. 이 편제의 특색은 도별로 營이 결정되고, 도의 인근지역의 군선으로 司가 지정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지역별로 편대를 구성하고 도별로 선단을 구

성하여 명령이 있을 때는 지정된 해역으로 집결함과 동시에 기동선단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임무와 위치가 결정되었음을 의미한다.²¹

국립진주박물관의 《통제영수군조련도》(덕2783)에서 군선들의 배치는 『병학통』 권2의 「통제영수군조련도」 중의 ‘삼도주사첩진도’에 제시된 것과 일치한다(도 3, 4). 『병학통』의 도식에는 문자로 배치도가 제시되었지만 국립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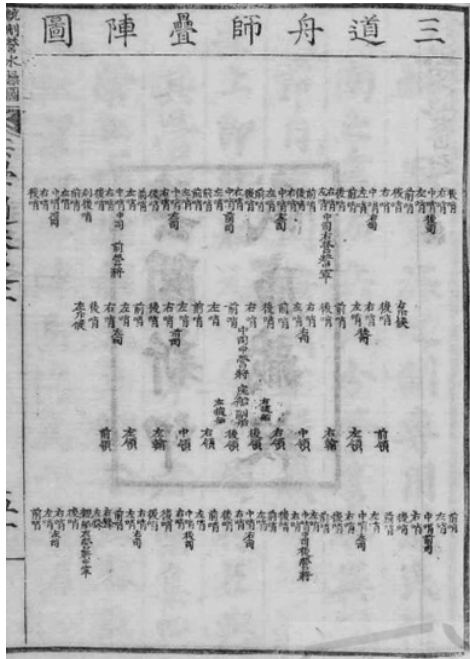


도 2 <통제영수군조련도>, 국립진주박물관(덕2783), 中營 前司 부분

²¹ 장학근, 앞의 책(1987), p. 253.

표 3 국립진주박물관 소장 <통제영 수군조련도>를 통해 본 삼도수군 편제

中營	前營	左營	右營	後營	
[三道大元帥] [副船] [永]左斥候永登鎮 [唐]右斥候唐浦鎮 [右探]右探船 [左探]左探船 [左別]親左輪船 [三千]前領三千 [龜船]左領龜船 [昆陽]中領昆陽 [固城]右領固城 [栗浦]後領栗浦 [右別]親右輪船 [加背梁]前領加背 梁(龜) [鎮海]左領鎮海 [龜山]中領龜山 [長浦]右領長浦 [南村]後領南村	[統中軍]中營將兼 中軍虞侯 [加一]前司把摠加 德 [天城]前哨官天城 (龜) [安骨浦]左哨官安 骨浦(龜) [晴川]右哨官晴川 [加二]後哨官加德 [昌原]左司把摠昌 原 [齊浦]前哨官齊浦 (龜) [熊川]左哨官熊川 (龜) [新門]右哨官新門 [金海]後哨官金海 [巨一]中司把摠巨 濟 [玉浦]前哨官玉浦 (龜) [知世浦]左哨官知 世浦(龜) [助羅浦]右哨官助 羅浦 [巨二]後哨官巨濟 [赤梁]右司把摠赤 梁 [蛇梁]前哨官蛇梁 (龜) [泗川]左哨官泗川 (龜) [晋一]右哨官晉州 [晋二]後哨官晉州 [彌助項]後司把摠 彌助項 [平山浦]前哨官平 山浦(龜) [舊所非]左哨官舊 所非(龜) [南海]右哨官南海 [河東]後哨官河東	[全前營]前營將全 羅左水使 [蛇一]左司把摠蛇 渡 [長興]前哨官長興 (龜) [鉢浦]左哨官鉢浦 (龜) [樂安]中哨官樂安 [蛇二]右哨官蛇渡 [鹿島]後哨官鹿島 [全左二]中司把摠 全左虞侯二 [全左四]前哨官全 左四(龜) [順天]左哨官順天 (龜) [防二]中哨官防踏 [興陽]右哨官興陽 [全左三]後哨官全 左三 [防一]右司把摠防 踏 [呂島]前哨官呂島 (龜) [會寧浦]左哨官會 寧浦(龜) [光陽]中哨官光陽 [古突山]右哨官古 突山 [寶城]後哨官寶城	[慶左營]左營將慶 尙左水使 [釜一]右司把摠釜 山 [釜二]前哨官釜山 二 [開雲浦]左哨官開 雲浦 [豆毛浦]右哨官豆 毛浦 [機張]後哨官機張 [中軍]中軍虞侯 [包伊浦]左鋒包伊 浦 [左三]右鋒左三 [左四]親船左四 [多一]左司把摠多 大 [多二]前哨官多大 [西平]左哨官西平 [西生]右哨官西生 鎮 [蔚山]後哨官蔚山	[全右營]右營將全 羅右水使 [中軍]中軍虞侯 [古今島]前司把摠古 今島 [馬島]前哨官馬島 (龜) [新智島]左哨官新 智島(龜) [靈巖]中哨官靈巖 [梨津]右哨官梨津 [於蘭浦]後哨官於 蘭浦 [加一]左司把摠加 里浦 [加二]前哨官加里 浦(龜) [海南]左哨官海南 (龜) [南桃浦]中哨官南 桃浦 [珍島]右哨官珍島 [金甲]後哨官金甲 [古羣山]山北獨鎮 古羣山 [法聖]前哨官法聖 (龜) [靈光]左哨官靈光 (龜) [蟬島]中哨官蟬島 [黔毛浦]右哨官黔 毛浦 [羣山]後哨官羣山 [臨淄]右司把摠臨 淄 [全右三]前哨官全 右三船(龜) [全右四]左哨官全 右四船(龜) [木浦]中哨官木浦 [務安]右哨官務安 [咸平]後哨官咸平 [在子]後司把摠在 子島 [羅一]前哨官羅州 一船(龜) [羅二]左哨官羅州 二船(龜) [多慶]右哨官多慶 浦 [智島]後哨官智島	[忠後營]後營將忠 清水使 [忠水二]中司把摠 忠水虞侯 [忠三]前哨官忠水 [海美]左哨官海美 [保寧]中哨官保寧 [忠四]右哨官四船 [結城]後哨官結城 [馬一]前司把摠馬 梁 [馬二]前哨官馬梁 (龜) [林一]左哨官林川 (龜) [洪二]中哨官洪州 [洪一]右哨官洪州 [林二]後哨官林川 [所一]左司把摠所 斤浦 [所二]前哨官所斤 浦(龜) [安一]左哨官安興 (龜) [安二]中哨官安興 [泰安]右哨官泰安 [比仁]後哨官比仁 [平一]右司把摠平 薪 [瑞一]前哨官瑞山 (龜) [瑞二]左哨官瑞山 (龜) [唐津]中哨官唐津 [沔川]右哨官沔川 [平二]後哨官平薪 [舒川浦]後司把摠舒 川浦 [舒一]前哨官舒川 (龜) [韓一]左哨官韓山 (龜) [藍浦]中哨官藍浦 [韓二]右哨官韓山 [舒二]後哨官舒川



도4 『兵學通』 권2, 「統制營水操圖」, 三道舟師疊陣圖



도5 『兵學通』 권2, 「統制營水操圖」, 尖字札圖

晴川(右哨)·加德2(後哨)의 편제와는 전혀 다르다(표 4). 표에서 보듯이 前司 뿐 아니라 중영의 우사·중사·좌사·후사의 편대 구성도 전부 다르다.²²

이것이 수군 편제에 실제로 변동이 생겨서 그랬던 것인지의 여부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 국립진주박물관의 《통제영수군조련도》가 『병학통』 중의 ‘삼도주사첩진도’라는 진법도를 그린 것이고, 선단의營·司·哨의 배치와 편제에서도 『병학통』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을 짚어두고자 한다. 또한 이 점이 통영 충렬사의 《통제영 수군조련도》를 포함한 다른 작품들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런 차이는 결국 제작시기의 차이를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적어도 국립진주박물관의 《통제영 수군조련도》(덕2783)의 제작시기가 『병학통』이 간행된 1785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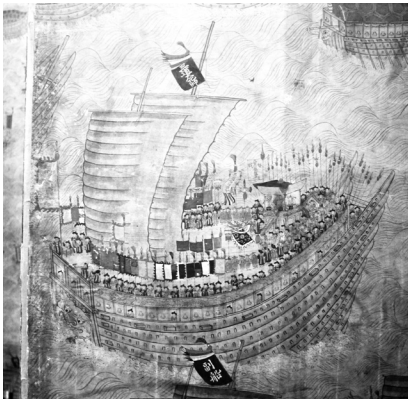
²² 통영 충렬사의 《통제영수군조련도》와 동일한 편제를 보이는 작품은 해군사관학교박물관 소장 일본교포 기증의 《통제영수조도》와 故박정희대통령 기증 《통제영수조도》, 국립진주박물관 소장 《통제영수군조련도》(구덕수궁 6270)와 《통제영 수군조련도》(구덕수궁 1636),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소장 《통제영 수군조련도》 등이다(표 1 참조).

표 4 삼도수군 中營의 편제 비교

	『병학통』, <尖字札圖>	국립진주박물관 소장 <통제영수군조련도>(덕2783) 중의 中營 편제	통영 충렬사 <통제영수군조련도> 중의 中營 편제
	座船 副船 左斥候永登 右斥候唐浦 左探船 右探船	[三道大元帥] [副] [永] 左斥候永登鎭 [唐] 右斥候唐浦鎭 [左探] 左探船 [右探] 右探船	[元帥] 座船 三道舟師都督司命 [副] [永] 左斥候永登鎭 [唐] 右斥候唐浦鎭 [左探] 左探船 [右探] 右探船
左右 翰 船	左翰船 前領三千 左領龜船 中領昆陽 右領古城 後領栗浦 右翰船 前領加背梁 左領鎭海 中領龜山 右領長木浦 後領南村	[左別] 親左翰船 [三千] 前領三千 [龜船] 左領龜船 [昆陽] 中領昆陽 [固城] 右領固城 [栗浦] 後領栗浦 [右別] 親右翰船 [加背梁] 前領加背梁(龜) [鎭海] 左領鎭海 [龜山] 中領龜山 [長浦] 右領長浦 [南村] 後領南村	[左翰] 左翰船 [鎭] 後列鎭海 [昌] 別中營將昌原 [熊] 右列熊川 [加一] 左列加德一 [龜] 統龜船 [右翰] 右翰船 [齊] 後司齊浦 [龜] 別中營將龜山 [安] 中司安骨 [天] 前司天城
中 司	中軍 中司巨齊一 前哨玉浦 左哨知世浦 右哨助羅浦 後哨巨齊二	[巨一] 中司把摠巨濟 [玉浦] 前哨官玉浦(龜) [知世浦] 左哨官知世浦(龜) [助羅浦] 右哨官助羅浦 [巨二] 後哨官巨濟	[中] 三道大中軍司令 [固] 中司把摠固城 [昆] 前哨官昆陽 [長] 中哨官長木鎭 [加二] 後哨官加德二
前 司	前司加德一 前哨天城 左哨安骨 右哨晴川 後哨加德二	[加一] 前司把摠加德 [天城] 前哨官天城(龜) [安骨浦] 左哨官安骨浦(龜) [晴川] 右哨官晴川 [加二] 後哨官加德	[河] 前司把摠河東 [南] 前哨官南海 [村] 左哨官南村鎭 [晋一] 右哨官晉州一 [晋二] 後哨官晉州二
左 司	左司昌原 前哨齊浦 左哨熊川 右哨新門 後哨金海	[昌原] 左司把摠昌原 [齊浦] 前哨官齊浦(龜) [熊川] 左哨官熊川(龜) [新門] 右哨官新門 [金海] 後哨官金海	[巨一] 左司把摠巨濟一 [四] 前哨官泗川 [助] 左哨官助羅鎭 [巨二] 右哨官巨濟二 [金] 後哨官金海
右 司	右司赤梁 前哨蛇梁 左哨泗川 右哨晉州一 後哨晉州二	[赤梁] 右司把摠赤梁 [蛇梁] 前哨官蛇梁(龜) [泗川] 左哨官泗川(龜) [晋一] 右哨官晉州 [晋二] 後哨官晉州	[赤] 右司把摠赤梁鎭 [蛇] 前哨官蛇梁鎭 [栗] 左哨官栗浦 [知] 右哨官知世浦 [玉] 後哨官玉浦
後 司	後司彌助項 前哨平山浦 左哨舊所非浦 右哨南海 後哨河東	[彌助項] 後司把摠彌助項 [平山浦] 前哨官平山浦(龜) [舊所非] 左哨官舊所非(龜) [南海] 右哨官南海 [河東] 後哨官河東	[彌] 後司把摠彌助項 [平] 前哨官平山浦 [舊] 左哨官舊所非浦 [三] 右哨官三千鎭 [加] 後哨官加背梁

2. 軍船과 儀裝物

국립진주박물관의 《통제영 수군조련도》에 그려진 軍船은 조선후기의 주력 군선인 판옥선과 기동 돌격선인 거북선이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앙에 배치된 대형의 판옥선인 座船으로 삼도수군통제사가 승선하는 군선이다.²³ 갑판 위에는 將臺라고 하는 누각이 설치되어 있어 이 곳에서 장수가 총지휘를 하게 된다. 그런데 좌선에는 장수가 그려져 있지 않다(도 6). 이는 副船과 다른 군선에 갑주를 착용한 장수의 모습이 묘사된 것과 대조를 이루는데, 마치 궁중 기록화에서 왕을 표현하지 않듯이 전장에서는 그 군령이 어명과도 같은 무게를 지니는 통제사의 모습을 일부러 표현하지 않은 것이라 여겨진다. 그 대신 통제사의 권위와 군한을 상징하는 虎頭令牌와 都督印을 담은 함, 鬼刀, 斬刀 등의 八賜品이 누각 안에 그려져 있어 통제사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 팔사품이란 임진왜란 때 명나라 神宗(1573-1621)이 이순신의 무공을 높이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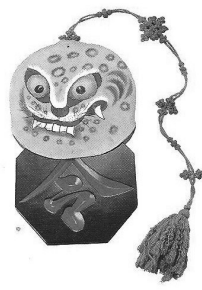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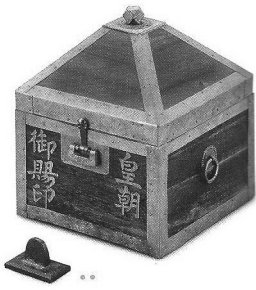


도 6 <통제영수군조련도>, 국립진주박물관(덕2783), 座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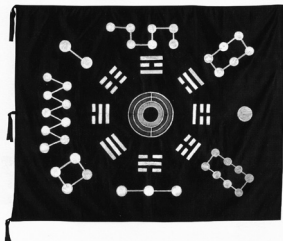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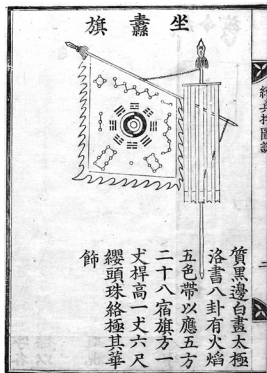
도 6-1 <통제영수군조련도>, 국립진주박물관(덕2783), 座船 부분

²³ 판옥선은 명종 10년(1555)에 倭船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발된 전투용 군선이다. 선체 위에 판옥을 구축하여 격군이 노를 짓는 하층과 포를 안치하여 전투를 수행하는 상층으로 구성되었다. 임진왜란 때 조선함대의 주축으로 활약을 했던 규모가 가장 큰 배였다. 김재근, 『板屋船考』, 『한국사론』 3권(1976), pp. 360-365. 도판에 보이는 군선은 갑판 위에 누각이 설치되어 있어 누선(樓船)이라고 하는데, 판옥선 중에 크기가 더 큰 것으로 통제사·水使 등이 탑승하는 旗艦이다. 김재근, 같은 논문, p. 363. 판옥선에 대해서는 김재근, 『板屋船考』, 『한국사론』 3권(1976), pp. 359-402; 김재근, 『우리배의 역사 9: 판옥선(2)』, 『해양한국』 1984권 7호(한국해사문제연구소, 1984), pp. 90-93; 박재광, 『우리나라의 전통무기-(18)판옥선』, 『과학과 기술』 40권 11호, (2007) 참조. 조선시대 선박의 모습을 담은 자료로 『各船圖本』(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 주요 자료로 알려져 있다. 김재근, 『조선왕조군선연구』(서울대학교한국문화연구소, 1976). 그러나 『각선도본』의 제작시기가 국립진주박물관 소장 《통제영 수군조련도》 보다 내려간다고 판단되므로 세부의 비교는 생략하고자 한다.



도7 <호두명패와 도독인함>, 명조팔사품, 통영 충렬사『충무공 이순신과 임진왜란』,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p.182)

찾을 수 있다. 『이충무공전서』 卷首의 圖說편의 ‘통제사가 장막 위에 올라갈 때 측근 裨將 2인이 羽笠[붉은 잣에 흰 깃을 꽂은 깃을 쓰고 紅帖裏[붉은 천으로 만든 철리]를 입고 어깨에 旂牌를 메고 나서며, 통제영 장교 4인이 귀도와 참도를 각각 어깨에 메고 또 아울러 독전기와 홍·남소령기를 들고서 앞에 갈라선다.’는 대목이 참조가 된다.²⁴ 또한 제187대 통제사 申觀浩가 1861년에 팔사



도8 『續兵將圖說』 坐纛旗와 <좌독기>, 121.0cm×150.0cm,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안내도록』, 2007, 도 196)

하여 보내온 8종류의 선물이다(도 7).²⁴ 누각바로 옆에 병사들의 싸움을 독려하기 위한 督戰旗도 보이는데, 이 또한 팔사품 중의 하나로서, ‘군사가 적을 만났을 때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처단한다(凡軍臨敵不用命者處斷)’는 문구가 있다.²⁵

팔사품이 수군 훈련의 현장에서 좌선의 장대 위에 통제사의 상징으로 배치된 내력은 『이충무공전서』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충무공전서』 卷首의 圖說편의 ‘통제사가 장막 위에 올라갈 때 측근 裨將 2인이 羽笠[붉은 잣에 흰 깃을 꽂은 깃을 쓰고 紅帖裏[붉은 천으로 만든 철리]를 입고 어깨에 旂牌를 메고 나서며, 통제영 장교 4인이 귀도와 참도를 각각 어깨에 메고 또 아울러 독전기와 홍·남소령기를 들고서 앞에 갈라선다.’는 대목이 참조가 된다.²⁶ 또한 제187대 통제사 申觀浩가 1861년에 팔사품을 그림으로 그려 병풍을 꾸미게 하고 손수 지은 발문에서 ‘팔사물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30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옛날에 의지하여 통제사의 의장물로 되어 行할 때에는 진 앞에 벌려 세우고 그냥 있을 때에는 사당 안에 진열해 놓는다.(八

²⁴ ‘明朝八賜品’은 都督印·虎頭令牌·鬼刀·斬刀·督戰旗·紅小令旗·藍小令旗·曲喇叭의 여덟 가지이다. 통영 충렬사 소장이며, 1966년에 보물 제440호로 지정되었다. 호두명패는 호랑이 머리가 그려진 팔각의 나무패이고, 도독인은 통제사의 인장으로 통제사의 군령을 상징한다. 귀도와 참도는 모두 칼인데 전자는 장군의 위엄을 상징하고, 후자는령을 어긴 자를 참수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팔사품에 대한 설명과 도식은 『李忠武公全書』, 卷首, 圖說, 八賜物에 상세히 나와 있다. 관련 연구로는 文智成, ‘통영 충렬사 ‘八賜品’에 대한 고찰(上)’, 『중국어문화논집』 71호(2012), pp. 507-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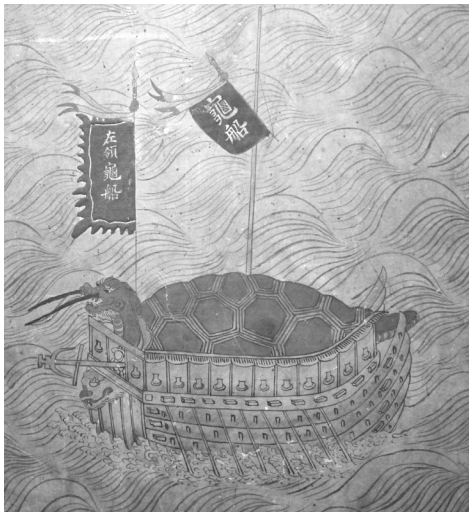
²⁵ 유물 사진은 『충무공 이순신과 임진왜란』 (현충사관리소, 2011), pp. 182-183 참조. 독전기는 원래 붉은 비단 바탕에 남색의 비단으로 글자를 오려붙인 것이지만 그림 속에서 노란 바탕에 검은색으로 글귀가 쓰여진 점은 오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구의 배치는 실물과 일치한다.

²⁶ 『李忠武公全書』, 卷首, 圖說, 八賜物, ‘統制使升帳 親裨二人 羽笠 紅帖裏 肩荷令牌 營校四人 肩荷鬼刀·斬刀 並與督戰旗 紅藍小令旗 分立于前’ 李殷相譯, 『國譯註解李忠武公全書』 上(충무공기념사업회, 1960), p. 97.

賜之物 至今三百年 而尚依舊 爲統制使之儀物 行則列于陣前 止則陳于堂中'라는 술회에서 보듯이 실제 수군 훈련 때 팔사품을 좌선으로 옮겼음을 알 수 있다.

독전기 외에 軍旗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坐纛旗'라고 하는 기이다. 검은 바탕의 사각기로 가운데에 태극이 그려지고 洛書와 後天八卦가 주위에 그려져 있는 이 기는 『續兵將圖說』에도 설명이 있고 유물로도 남아있는 것이다(도 8).²⁷ 이 외에 '三道大元帥'라고 쓰여있는 帥字旗가 계양되어 있고, '三道舟師司命'이라 쓰인 司命旗 등이 보인다. 이상을 통해 국립진주박물관 <<통제영수군조련도>>가 각종 기물의 세부묘사에 이르기까지 사실에 입각하여 세밀하게 묘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국립진주박물관의 <<통제영수군조련도>>를 보면 각 시마다 2척의 거북선이 편성되어 있는 점이 눈에 띈다(표 3). 1795년 편찬된 『李忠武公全書』 卷首의 圖說편에 거북선의 도식과 함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설명이 있어 조선후기 거북선의 모습과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데, 국립진주박물관의 <<통제영수조도>>에 그려진 거북선은 『이충무공전서』 중의 <전라좌수영귀선>의 도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도 9, 도 10). 즉 뱃머리에 용의 머리가 설치되었고, 그 아래에 귀신 머리가 조각되었으며, 覆版 위에는 거북 무늬가 그려졌고, 좌우 노는 각각 여덟 개씩 그려져 있어



도 9 <통제영수군조련도>, 국립진주박물관(덕2783), 귀선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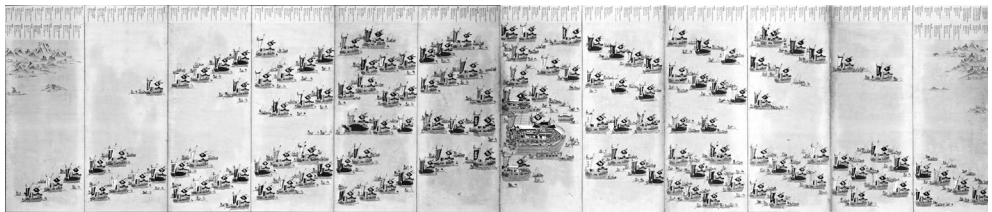
도 10 『李忠武公全書』, 「圖說」, 전라좌수영귀선, 정조 19년(1795)판, 충남대학교 도서관(고서集,別集類-韓國 531 1)

²⁷ 『續兵將圖說』은 영조 25년(1749) 간행된 병서이다. 1742년에 간행된 『병장도설』의 체제를 본떠서 중앙군의 진법·조련·편성·기구 등을 설명한 병서이다. <<통제영 수군조련도>>의 의장물과 『속병장도설』 도식과의 비교는 柳永博, 앞의 논문, pp. 20-21.

『이충무공전서』에 수록된 도식 설명과도 부합된다.²⁸ 그런데 『이충무공전서』에 따르면 조선 후기 당시 통제영에서 사용되던 거북선이 따로 있었고, 이는 전라좌수영 거북선과는 다른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²⁹ 그렇다면 통영 합조를 그린 그림에 왜 통제영거북선이 아닌 전라좌수영 거북선을 그린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전라좌수영 귀선에 대한 설명 중에는 ‘충무공이 이 배를 창조한 곳은 실로 전라좌수영이었는데…’라는 구절이 보이는데, 전라좌수영 거북선을 채택하여 그려 넣음으로서 거북선을 개발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에 대한 숭모의 뜻을 담으려 한 것이 이유가 아닌가 여겨진다.³⁰

이상 국립진주박물관의 <통제영수군조련도>(덕2783)에 묘사된 군선과 의장물의 도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의장물의 경우 현존하는 유물도 있고, 일부는 『속병장도설』, 『이충무공전서』와 같은 책에 도식과 설명이 전해지고 있어서 그림 속의 의장물이 사실에 입각하여 세심하게 그려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당시 화가가 실제 훈련 현장을 보고 사실에 입각하여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국립진주박물관 <통제영수군조련도>의 의장물은 통영 충렬사 소장의 <통제영수군조련도>를 비롯한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보면 의장물의 구성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도 11). 예를 들어서 ‘대원수’라 쓰인 帥字旗가 통영 충렬사의 그림에서는 ‘元帥’라 쓰인 것



도 11 傳 鄭孝峴 作, <통제영 수군조련도>, 19세기 말~20세기 전반, 지본채색, 137.5 × 672cm, 통영 충렬사

²⁸ 卷首, 圖說, 龜船, ‘全羅左水營龜船 尺度長廣 與統制營龜船略同 而但龜頭下 又刻鬼頭 覆版上畫龜紋 左右各有二門 龜頭下廠穴二舷板左右廠穴各一 舷欄左右廠穴各十 覆板左右廠穴各六 左右櫓各八.’ 번역은 李殷相譯, 앞의 책, p. 105.

²⁹ 통제영 거북선은 뱃전에 목이 없이 용머리가 바삭 붙어 있고, 그 아래의 귀선머리 장식이 없으며, 난간 좌우에 판자 [盖板 또는 龜背版]를 비늘처럼 서로 마주 덮었다는 점이 큰 차이점으로 보인다. 『李忠武公全書』 卷首, 圖說, 龜船, ‘牌欄左右各用十一版 [俗名 盖板 又 龜背版] 鱗次相向而覆….’ 번역은 李殷相譯, 위의 책, p. 104.

³⁰ 『李忠武公全書』 卷首, 圖說, 龜船, ‘公之創智制船 寔在於全羅左水營 而今左水營龜船 與統制營龜制 略有異同 故付見其式于下.’ 번역은 李殷相譯, 위의 책, p. 105. 정조는 존주론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작업을 행하며 춘추지를 재천명하고자 하였고, 그 일환으로 역대 충신과 義士를 다시 부각시켜 현창하고 순절한 충열지사의 후손들을 찾아 포장· 祿恤하는데 힘을 쏟았다. 이에 따라 이순신에 대한 적극적 표창사업이 이루어졌다. 정옥자, 『正祖代 對明義理論의 整理作業—(尊周彙編)을 中心으로—』, 『韓國學報』 제69집(일지사, 1992), p. 88-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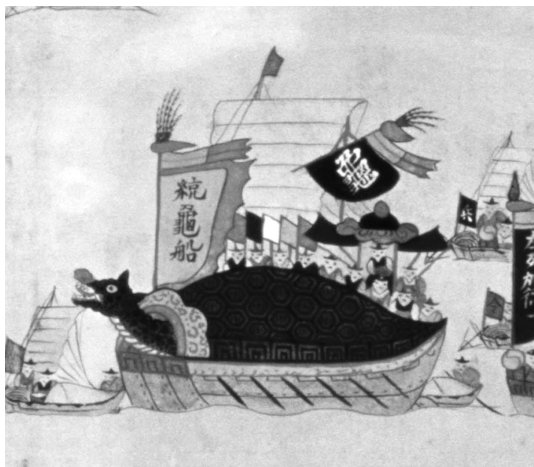
으로 바뀌었고, 사명기와 독전기 등은 동일하지만 국립진주박물관 병풍에는 없는 高招旗라고 하는 오방색으로 이루어진 군기가 추가된 점이 다르다(도 12). 또한 뱃머리 갑판 위에 ‘操牌’와 ‘肅靜’의 패가 세워져 있는데, 조패는 水操의 개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물이고 숙정패는 훈련 때 정숙을 유지하고 명령을 기다리라는 신호로 세워지는 패이다. 또한 통영 충렬사의 《통제영 수군조련도》에는 누런 바탕에 적색으로 용을 그린 ‘교룡기’가 등장한 것도 차이점이다. 교룡기는 왕이 친림하였음을 상징하는 기이다.

또한, 통영 충렬사의 《통제영 수군조련도》에 묘사된 거북선의 모습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목이 길고 입이 뾰족하게 돌출되었으며 코가 빨강다. 목 둘레에 귀갑이 말린 부분은 마치

목도리를 두른 것 같은 독특한 형상으로 나타났다. 『충무공전서』에 제시된 거북선 도식과는 무관하게 완전한 거북의 형상을 본뵈었다(도 13). 이처럼 청색 귀갑에 목이 길고 코가 빨간 거북의 표현은



도 12 <통제영 수군조련도>, 통영 충렬사, 좌선 부분



도 13 <통제영 수군조련도>, 통영 충렬사, 거북선 부분



도 14 <신구도>, 19세기 후반, 지본채색, 66.9 × 34.0cm, 도쿄 일본민예관(정병모, 『민화, 가장 대중적인 그리고 한국적인』, 도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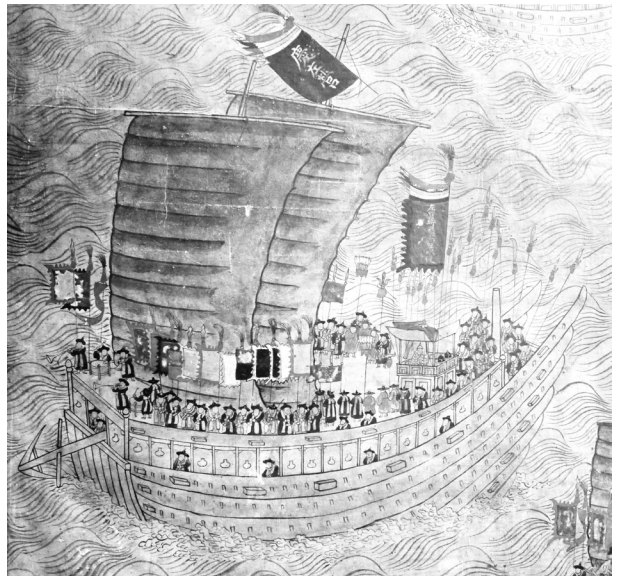
조선 말기의 의궤와 십장생도, 신선도, 거북도 등에 묘사된 거북의 표현과 상통한다(도 14).³¹

이처럼 국립진주박물관의 《통제영 수군조련도》에 등장한 의장물들이 통영 충렬사의 《통제영 수군조련도》를 비롯한 다른 《통제영 수군조련도》에 그려진 것과 차이가 나고, 거북선의 형상 또한 판이하게 다르다.

3. 인물모범과 수파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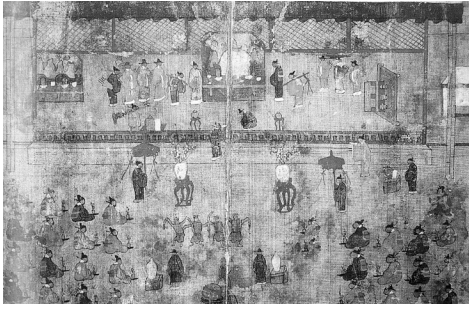
국립진주박물관의 《통제영수군조련도》의 인물 표현은 5등신 정도의 비례에 얼굴은 계란형으로 윤곽선을 그렸고, 모자를 안정되게 착용하였다. 그런데 이목구비가 표현되지 않은 점이 눈길을 끈다(도 15). 이 같은 인물 표현은 18세기 전반의 기록화에서 종종 나타나는 것으로 〈선묘조제재경수연도(宣廟朝諸宰慶壽宴圖)〉(18세기 전반,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와 〈진연도첩(進宴圖帖)〉(1706년경작,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볼 수 있다(도 16)). 한편, 이들이 착용한 군복을 보면 몇 가지 다른 유형이 눈에 띄고, 자세도 두 손으로 군기를 받치고 있거나 뒤를 돌아보고 있는 등 직업에 따라서 달리 표현되어 세심하게 안배되었음을 느낄 수 있다. 이는 통영 충렬사의 《통제영 수군조련도》에 표현된 인물과 큰 대조를 이룬다. 후자에서 인물은 몰골법으로 처리된 얼굴에 눈과 입을 점으로 간략하게 찍었고 코는 생략하였다. 장졸들은 모두 같은 복장이고 몇 가지 다른 색상이 규칙적으로 반복될 뿐이다(도 12, 13).

국립진주박물관의 《통제영 수군조련도》에서 배경은 파도문으로 빼곡히 채워져 있다. 울동감있게 사선으로 멀어지는 물결의 모범이 규칙적으로 반복되었다. 다소 형식화된 이 같은



도 15 <통제영수군조련도>, 국립진주박물관(덕2783)의 좌영경상좌 수사부분

³¹ 『헌경혜빈현릉원원소도감의궤』, 1815년, 46.0×33.0cm, 〈현무도〉; 김홍도, 〈바다 위의 신선들〉, 『한국의 도교문화』(국립중앙박물관, 2013), p. 185, 도 191 참조



도 16 <진연도첩>, 부분, 1706년경(1712년 후서), 견본 채색, 29×41cm, 국립중앙도서관(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일지사, 도 35-2)



도 17 <강화지도>, 부분, 18세기 전반, 지본채색, 139×205.7cm, 고려대학교박물관(『조선시대 기록화의 세계』, 고려대학교박물관, 도판 62의 세부)

수파묘의 표현은 18세기 전반의 <江華地圖>에 보이는 사선으로 이어지는 물결 표현과 유사하고, 수파묘로 배경을 뺀 채운 점도 상통한다(도 15, 17). 이에 반해 통영 충렬사의 <통제영수군조련도>에는 파도문이 표현되지 않았다.

국립진주박물관의 <통제영수군조련도>는 갈색조의 배경과 軍船의 표현에 靑·紅·黃·綠·白·黑 등 다채로운 색상의 인물과 의장물이 어우러져 화면에 풍부함이 더해졌다. 그러나 사용된 색상이 비교적 단순한 편이고 전체적으로 안정된 채색감을 보인다. 이러한 점은 통영 충렬사 <통제영수군조련도>에 사용된 형광빛이 도는 하늘색이나 주황색, 옥색 등 서양 안료가 사용되어 훨씬 다양한 색상이 사용된 점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국립진주박물관 <통제영수군조련도>에 사용된 '삼도주사첩진'이라는 진형이 『병학통』(1785년)에 처음 수록된 것이고, 거북선의 도상은 『이충무공전서』(1795년)에 실린 <전라좌수영귀선>을 취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제작 시기는 적어도 1795년 이후일 것이다. 선박의 돛에 적극적으로 음영을 넣은 점과 外板에 박힌 나무못을 일일이 그려 넣고 음영을 가한 점은 전 김홍도 필 <평양감사향연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에 등장한 선박과 유사하여 제작 시기는 19세기로 상정되는데, 인물의 묘법과 파도문, 채색감각 등의 보수적 성향을 감안할 때 19세기 전반으로 좁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도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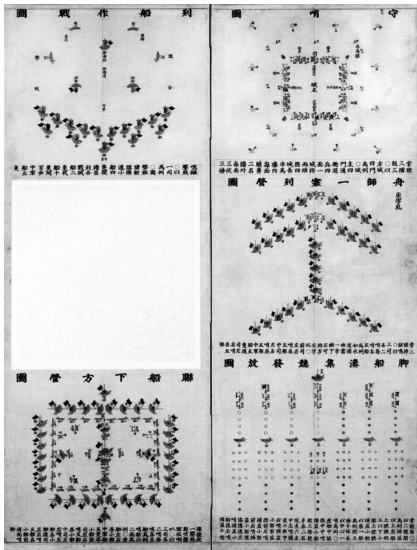
IV. <통제영 수군조련도>의 용도와 제작자

국립진주박물관 소장 <통제영 수군조련도>는 대형의 채색 병풍화로서 그 주된 용도는 장식에 의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조선 수군 대선단의 진형과 편제를 충실하게 반영하

었다는 점에서 군사 훈련을 위한 실질적 참고자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본 장에서는 이 작품의 용도를 짚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 그림이 수군 조련의 행사를 기록한 기록화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현존하는 《통제영 수군조련도》가 19세기 이후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림의 주문자와 제작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보하고자 한다.

1. 公館의 장식과 陣形의 숙지

국립진주박물관 소장 《통제영 수군조련도》는 높이 1.5미터가 넘는 대형의 8폭 병풍에 통제영 수군 조련의 위용 넘치는 모습을 담은 것이다. 이 같은 그림은 통제영을 비롯한 水營 영내의 공관에 배치되어, 軍營을 장식하고 위엄을 드높이데 일조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조선 수군 대선단의 진형과 편제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어서 군사 훈련 때에 이를 실질적으로 참고하였을 가능성도 크다고 여겨진다. 병풍 형식의 이 같은 그림은 공적인 공간에 벌여놓고 수시로 참조하기에 용이하다.



도 18 필자미상, 《營陣圖二幅屏》 남면 오른쪽, 견본채색, 147.5×56.8cm, 국립고궁박물관(『궁궐의 장식그림』, 국립고궁박물관, 도판 7-8)

이처럼 陣圖를 그려서 屏障 형식으로 꾸민 예로 《營陣圖 加里개》가 있다. 《영진총도 加里개》는 『병학지남』 권3·4 「營陣圖」에 수록된 각종 陣圖를 2폭짜리 障子 8점에 나누어 그린 것이다. 이 중 수군조련에 관련된 陣圖는 다섯 점이다(도 18).³² 각 加里개 상단 부분에는 ‘동·서·남·후면’이라는 한글 목서가 있어 각각의 방위에 따라 한 쌍씩 배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加里개는 궁중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같은 陣法圖 加里개는 軍備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군왕 및 관련 지휘관들이 군사조련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국립진주박물관의 《통제영수군조련도》는 이러한 陣法圖 병풍 제작과 같은 맥락에서 제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³² 『궁궐의 장식그림』(국립고궁박물관, 2009), pp. 48-53.

2. 삼도수군의 개념도

국립진주박물관의 《통제영 수군조련도》가 실제 행해졌던 훈련을 반영한 기록화인지 아니면 실제로 행해지지 못한 훈련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했던 선단의 대오를 상상하여 그린 개념도로 볼 것인지를 짚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삼도 수군의 합조가 실제로 얼마나 실행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영 앞바다에 삼도 수군이 모두 집결하여 진형을 바꾸어 가면서 훈련을 하는 모습은 장관이었을 것임은 말할 나위 없다. 하지만 실제로 합조 시행은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병졸들로서는 소속 읍진을 출발하여 통영에서 훈련을 수행하고 다시 귀가하기까지 한 달이 넘는 시일이 소요되었고, 군량미도 각자 조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³³ 합조의 때가 농사철과 겹치거나, 凶荒·전염병 등의 피해가 발생한 해에는 그 폐단이 더욱 심하였다. 더구나 훈련 중에 혹은 훈련을 위해 이동하는 중에 익사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효종 5년(1654)의 춘조 중에 60여명이 익사한 사고와 숙종 4년(1678)년 합조 때에 백여 명의 익사자를 낸 사고가 그 예이다.³⁴ 정조 4년(1780)과 정조 14년(1790)에도 군졸이 익사하는 사고와 戰船이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렇듯 수조를 실행함에 있어서는 潮流와 기상 조건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어 실행 여부와 실행 시기 등을 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 했다.³⁵ 따라서 합조는 물론이고 각 營의 앞바다에서 시행되는 水操조차도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정에서는 해마다 춘조와 추조를 앞두고 그 시행 여부를 임금께 보고하였는데, 〈표 2〉는 『승정원일기』와 『비변사등록』 중의 관련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기록이 빠진 해도 있기 때문에 이 표가 水操의 시행 상황을 완전히 반영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참조할 만한 자료는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경상·전라·충청 삼도 수군 중 충청도의 수군의 경우 이동 거리는 가장 멀어서 통영을 왕래하는 부담이 더 컸는데 험한 조류로 인해 戰船 침몰의 위험도 높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더욱 컸다. 또한 조선 후기 荒唐船 출몰이 점차 빈번해지면서 중국과 인접한 충청 수군은 이에 대비해야 했으므로 병영을 비워두고 먼 곳으로 갈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³⁶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제로 충청도를 포함한 삼남의 합조는 실행된 사례가 매우 드물었던 것으로 보이고,

33 『비변사등록』, 정조2년 7월 22일, ‘…窮民之裹糧遠赴, 亦涉重難.’

34 『비변사등록』, 효종5년 4월 26일 & 4월 29일; 숙종4년 3월 26일.

35 『비변사등록』, 정조 4년 12월 27일; 정조 14년 9월 25일.

36 『비변사등록』, 영조 25년 1월 27일, ‘合操之五十年不行, 雖曰可悶, 蓋此合操, 全爲備倭, 而湖西則與中國隔海, 荒唐船出沒之地, 決不可空營遠赴, 湖南之赴操, 亦難矣, 雖以各操言之, 每年一次赴操, 率多敗船, 許多軍人, 莫重軍器, 淪死沈失之患相續, 實爲重難, 況千里海路之合操乎, 今年, 亦姑令各道舉行, 何如.’

그나마 설행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시기는 일본의 침입위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았던 인조~현종 연간이었다. 그런데 이 시기 삼남 합조의 규모는 그다지 크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7대 통제사였던 이운룡이 1606년에 실시했던 삼남합조는 戰船 20여척이 참여했을 뿐이었다.³⁷ 戰船의 체제와 승선 액수의 확보, 水軍營의 재정 확충 등 훈련 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숙종조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볼 때 국립진주박물관 소장 《통제영 수군조련도》에 그려진 규모의 합조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여겨진다.³⁸

숙종~영조 연간에는 충청·경상·전라 삼도의 합조가 한 차례도 행해지지 못했던 것을 ‘삼도의 합동 조련은 범위가 매우 커 백 년 가까이 행하지 못한 일을 갑자기 의논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라는 영조 47년(1771)의 기록으로 알 수 있다.³⁹ 결국 기록에 언급된 춘조·합조·통영춘조 등의 용어는 사실은 경상·전라 兩南 합조이거나 영남 좌·우도의 합조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숙종 13년 丁卯年(1687)에 한산도 앞바다에서 행해졌던 영남좌·우도의 합조와 숙종 20년 甲戌年(1694)에 설행되었던 전라·경상 양남의 합조가 기억할 만한 합조였고, 이후 적어도 69년 동안 어떤 형태의 합조도 설행되지 못하였음을 영조 37년(1761)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⁴⁰ 결국 삼도 수군의 합조는 외침에 대비하며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인조~현종 연간에는 설행되었으나 그 규모는 크지 않았으며, 숙종 전반기에는 주로 경상좌·우도 혹은 양남의 합조가 행해졌고, 이후 국제정세가 안정되고 평화기에 접어들면서는 한 차례도 설행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2)

정조는 군사체제의 정비에 대한 관심이 지극하여, 각종 兵書의 간행에 힘을 기울였고 이를 통해 수조절차의 준칙을 세웠던 왕이다. 그런데 정조 연간에 조차도 즉위년인 丙申年(1776)과 정조 4년(1780), 그리고 정조 14년(1790) 가을에 각 영 앞바다에서 수조를 설행하였을 뿐 통영에서 삼도 수군이 모여서 행하는 합조는 한 번도 설행하지 못했다. 정조는 ‘戎政이 지극히 중함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백성을 소요하게 하느니 차라리 실효가 없는 게 낫다.’고 하여 민생을 우선 시하였음을 볼 수 있다.⁴¹ 또 ‘평상시 조련으로 말하더라도 司의 조련이 한營의 습조보다 낫고 哨의 조련은 더욱 사의 조련보다 낫다. 숙련의 길은 크게 별리는 데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대규모 군사훈련인 합조에 그다지 집착하지 않았고, 오히려 도별 훈련의 충실한 시행을 의미

³⁷ 李雲龍, 『息城君實記』 권3, 「追錄」, 居營日記, ‘丙午(1606) 5月29日, 乘戰船 率標下三道戰船二十餘隻水操.’ (『國譯息城君實記』, 지강서원, 1991, p. 380)

³⁸ 이민웅, 앞의 논문, pp. 61-65.

³⁹ 『비변사등록』, 영조 47년 1월 15일, ‘…三道合操舉措甚大, 近百年未行之事.’

⁴⁰ 『비변사등록』, 영조 37년 2월 2일 ‘兩南舟師春操, 則合設于本營前洋, 秋操, 則各其水營設行, 已有定式, 而丁卯春嶺南左·右道合設, 兩南合操, 二去甲戌年設行後, 因朝令停廢, 今至六十九年之久.’

⁴¹ 『비변사등록』, 정조 12년 7월 14일, ‘非不知戎政之雖重, 與其擾民而無實效.’

있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⁴² 이는 민생고를 덜어주려는 정조의 위민의식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기조는 뒤이은 순조연간과 헌종, 철종 연간에도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삼도 수군의 합조는 외침 위협에 긴장하며 국방에 대한 경각심이 컸던 17세기에는 시행되었을지 모르겠으나, 18~19세기에는 시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통제영수군조련도》는 따라서 실제로는 행해지지 않았던, 삼남 수군 합조의 웅장한 위용을 시각적으로 제시한 개념도였다고 할 수 있다. 조선수군은 평시에 수조를 통하여 기동선단을 편성하는 훈련을 부단히 연마하였다. 조선수군은 군선과 인원이 연해 各邑鎭浦에 산재하여 연해민을 보호하고 있으나 유사시에는 단시간에 선단을 편성하여 신속한 기동항해로 해상에서 적 선단을 차단·공격·섬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시에 선단이 사전 편성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통제영수군조련도》는 삼도수군이 모두 집결하여 구성하는 수군편제의 완성도를 보여준 것이라 여겨진다.

3. 지방 행사의 형상화와 지방화단

앞에서 국립진주박물관 《통제영 수군조련도》가 水營을 장식하는 한편 삼도수군 대선단의 편제와 진형을 제시한 개념도의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 보았다. 그런데 국립진주박물관의 《통제영 수군조련도》는 군선과 인물 및 각종 의장물이 충실하게 묘사되어 회화 작품으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수영을 장식하고 삼도수군의 편제와 진형을 제시하기 위한 용도라면 《영진총도 가리개》처럼 상징물로 간략화 하든지 병서에서처럼 문자로 표기하여도 충분하였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에 《통제영 수군조련도》의 제작 배경에 대한 다른 가능성이 제기된다. 19세기 들어서 지방의 행사를 형상화한 다양한 작품이 활발하게 제작되기 시작하였던 점이 주목되는 것이다. 특히 지방관의 행차나 지방관이 주도한 행사, 백성들의 다양한 생활 등을 담은 그림이 해당 지역의 실제 경관을 배경으로 그려져 새로운 회화식 지도의 유형으로 자리 잡기도 하였는데, 《통제영 수군조련도》의 제작이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⁴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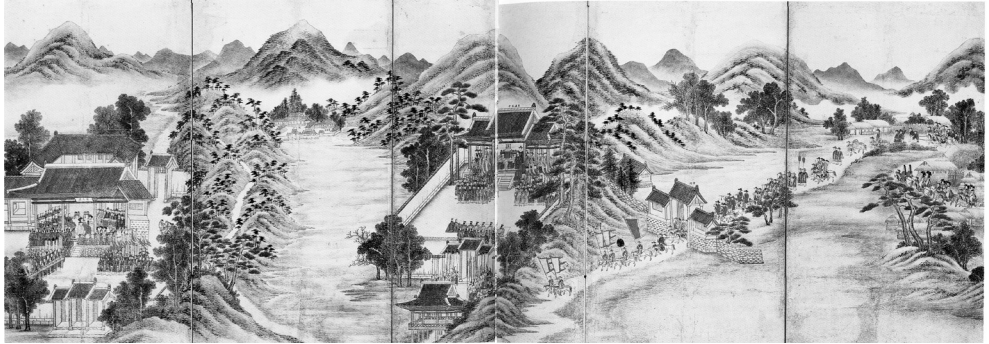
조선후기에는 지방의 실정을 시각적으로 재현하여 상부에 보고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예를 들어 영조 49년(1773) 충청 수사에게 해당 지역과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싶으므로 영보

⁴² 『비변사등록』, 정조 12년 7월14일, ‘雖以尋常操鍊言之, 司鍊勝於舉一營習操, 哨鍊尤勝於司鍊肄習, 鍊熟之道不在於張大與否.’

⁴³ 李勛相, 「조선후기 지방 파견 화원들과 그 제도, 그리고 이들의 지방 형상화」, 『東方學志』 144(2008), pp. 335-362; 박은순, 「19세기 회화식 군현지도와 지방문화」, 『한국고지도연구』 제1권 제1호(2009), pp. 37-39.

정과 그 앞에서 전복을 깨는 모습을 그린 도형을 그려서 올리라고 한 일, 정조 6년(1782) 평안도 道科의 시행과 급제자 발표 후 대동강에서 행해졌던 유희의 장면과 평양 지도를 병풍으로 제작하여 바치라고 지시한 일 등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⁴⁴ 현존하는 그림으로는 동래부에 도착한 일본 사신들을 맞이한 행사를 그린 《東萊府使接倭使圖》와 평양 감사가 참석한 향연 행사를 그린 《평양감사향연도》 등 작품에서 볼 수 있다(도 19).⁴⁵ 이들은 각각 동래부와 평양의 대표적 행사로서 지방관의 행차가 화려하게 펼쳐졌다는 공통점이 보인다. 《통제영 수군조련도》에 그려진 통영합조는 통제사가 지휘하는 통영의 대표적인 행사였고, 통제사가 참석한 수군 대선단의 항행 장면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이처럼 이른바 ‘지방의 형상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지방관의 적극적 주도과 도화사에서 지방에 파견된 畫師軍官의 존재로 인한 것이었음이 알려져 있다.⁴⁶ 국립진주박물관 소장 《통제영 수군조련도》의 주문자와 제작자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작품은 통영 충렬사 소장의 《명조팔사품도》 병풍이다. 앞 장에서도 간략하게 언급하였지만 이 병풍은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황제 신종이 보내와서 통영 충렬사에 보관되어 있던 여덟 가지 의장물을 통제사 신관호가 1861년 그림으로 그리도록 시키고 병풍으로 꾸민 것이다. 12폭 병풍의 제작이 통제사의 주도로 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제영 수



도 19 필자미상, 《東萊府使接倭使圖》, 10 폭병풍, 1813년 이후, 지본채색, 83,0×452,0cm, 국립중앙박물관

⁴⁴ 『승정원일기』, 영조 45년 6월 25일 및 『영조실록』, 영조 45년 6월 25일; 『일성록』 정조 6년(1782) 10월 22일. 李勛相, 앞의 논문, pp. 338-345에서 재인용.

⁴⁵ 《동래부사접왜사도》는 국립진주박물관 소장본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일본 東京國立博物館 본 등 세 본이 있는데, 모두 10폭 병풍이다. 제작 시기는 1813년 이후~19세기 후반으로 관련 연구에서 추정되었다. 申楠旻, 「東萊府使接倭使圖屏 研究」(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평양감사향연도》는 평양 감사의 부임을 축하하는 향연이 아닌 평안도 道科 급제자를 위한 향연이라는 해석이 제기되었다. 이훈상, 위의 논문, pp. 338-339.

⁴⁶ 이현주, 「朝鮮後期 統制營 畫員 研究」, 『石堂論叢』 제39집(2007), pp. 317-322; 이훈상, 위의 논문, pp. 335-362; 박은순, 앞의 논문, pp. 43-57;

군조련도》도 수군 조련의 현장인 통영에서 통제사의 발의에 의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화사군관은 조선후기에 각 도의 감영과 병영 등에 차견되어 지방에서 활동하였던 화사이다. ‘감영과 병영, 통제영, 수영에 화원을 한 명씩 차송하리’는 『大典會通』 兵典 외아전 군관직에 수록된 조항에 따라 각 감영과 군영에 화사가 한 명씩 배치되었던 제도를 일컫는다.⁴⁷ 통제영은 군영들 가운데에서도 군사상 가장 중요한 거점으로서 1707년에서 1713년 사이에 화사군관이 파견되기 시작해서 이 제도가 혁파된 1895년까지 이어졌는데, 통제영 화사군관의 경우 1713년부터 1830년경까지 116년간 활동했던 24명의 명단이 통영 세병관 편액을 통해 확인된다.⁴⁸ 1830년까지 확인된 화사 24명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잘 알려진 화원 가문 출신의 도화서 화원으로서 주요 국가행사에 동원되어 도화의 직무를 수행하기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군현지도를 비롯하여 행정적·군사적 필요에 의한 각종 그림 업무를 담당하였다. 현재 다수의 통영 지도가 전해 내려오는 것도 통영에 주재했던 화사군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⁴⁹

국립진주박물관 소장의 《통제영 수군조련도》의 배경에 꼼꼼하게 채워진 수파묘의 표현이 〈강화지도〉에 그려진 수파묘와 유사한 점을 앞서 지적하였는데, 화사군관의 회화 활동의 범주 안에 드는 것이라 흥미롭다. 그런데 국립진주박물관의 《통제영 수군조련도》가 실제로 화사군관에 의해 제작되었던 것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비슷한 맥락에서 화사군관에 의해 제작되었다고 여겨지는 《동래부사접외사도》나 《평양감사향연도》와 비교할 때 그림의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그림의 제작자로 함께 관심이 가는 이들은 통영 공방의 화공들이다. 통영에는 군수품 조성을 위해 운영되던 ‘통영 12공방’이 있었는데, 통제영 직영의 공방으로서 진공품과 군기를 조성했던 통제영의 官倉이었다. 1603년 6대 통제사 李慶濬이 현재의 위치에 통제영 본영을 설치하면서 군수품 조성을 위해 군영 공방체제가 시작되었는데 전국에서 여러 분야의 공인들이 모여들어 조직적인 공방 체계를 갖추게 되어 18-19세기에는 국내 전역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까지 그 명성을 떨쳤다.⁵⁰ 특히 갓을 만드는 입자방, 목재 가구 등을 만드는 소목방, 나전칠기를 담당한 패부방 등 12공방 체제로 운영되어 통영12공방이라 불리었다. 통영 갓과 통영 나전칠기는 특히 유명하여 오늘날까지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는 畫員房(畫員匠房)이 있어서 각종 지도와 수군조련도 등 군사적 목적의 그림과 의장용 장식화 제작을 담당하였던

⁴⁷ 『大典會通』4, 兵典, ‘諸道監·兵·統·水營 寫字官·畫員 各一人 於額內差送…’

⁴⁸ 이현주, 앞의 논문, pp. 301-316; 이훈상, 앞의 논문, pp. 310-323.

⁴⁹ 이현주, 위의 논문, p. 318; 이훈상, 위의 논문, pp. 321-324; 박은순, 앞의 논문, p. 37.

⁵⁰ 조윤주, 『명품명장 통영12공방 이야기』(디자인하우스, 2009), p. 19.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¹

고종 32년(1895년) 간행된 『統營誌 附事例』의 公廨篇을 보면 화원장방에는 ‘厄首 1명, 圖畫 工 1명, 工 19명’이 소속되어 있었으므로 20명 남짓한 화공들이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⁵² 이들은 통제영에 파견된 화사군관과도 긴밀한 협조와 영향 관계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는데, 국립진주박물관의 《통제영 수군조련도》에 드러나는 다소 보수적인 회화 양식은 이러한 제작 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화사군관이 전해준 중앙의 화풍을 통영 공방의 화공들이 답습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수적 화풍을 견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상 국립진주박물관 소장 《통제영 수군조련도》가 대형의 병풍에 그린 채색화로서 水營 공관을 장식하고, 陣形圖를 숙지하는 한편, 軍備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군사조련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 용도를 짚어 보았다. 또한 통영합조에 대한 『승정원일기』와 『비변사등록』 등의 기록을 검토하여 삼도 수군의 합조가 거의 시행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고, 따라서 이 그림이 실제 행해졌던 훈련의 모습을 담은 기록화가 아닌 삼도수군 선단이 모두 집결했을 때의 완성된 진형을 제시한 개념도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통제영 수군조련도》의 제작 배경으로 19세기 들어 지방관의 행차나 지방관이 주도한 행사를 담은 그림이 해당 지역의 실제 경관을 배경으로 활발히 그려지기 시작한 움직임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동래 부에 도착한 일본 사신들을 맞이한 행사를 그린 《동래부사접외사도》와 평양 감사가 참석한 향연 행사를 그린 《평양감사향연도》 등의 작품과 같은 맥락에서, 통영의 대표적인 행사인 통영합조가 그려졌을 가능성을 추정할 것이다. 통제사가 참석한 수군 선단의 항행 장면이 화려하게 묘사되었던 것도 이 무렵 지방관의 행차 모습이 적극 묘사되었던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국립진주박물관의 《통제영 수군조련도》를 주문한 사람은 통제사 그리고 그림을 그린 사람은 화사군관 혹은 ‘통영 12공방’ 중의 화원장방 소속 화공이었을 가능성을 짚어 보았다.

V. 맺음말

이상 국립진주박물관 소장 《통제영 수군조련도》를 중심으로 《통제영 수군조련도》의

⁵¹ 『統營誌 附事例』(奎12186) 公廨篇; 金一龍, 『統營郷土史 研究 論文集』통영문화원 향토사총서 제12집, 「통제영 공방 연구-19세기 통제영12공방을 중심으로」, 통영문화원, pp. 185-206 재인용.

⁵² 『統營誌 附事例』(奎12186) 公廨篇, 畫員匠房.

도상과 회화 양식, 제작 배경과 제작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통제영수군조련도는 임진왜란 이후 외침에 대비하기 위해 시작된 경상·전라·충청 3도의 수군합동조련을 그린 그림이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 수군은 매년 봄·가을에 조련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각각 춘조·추조라고 하였다. 춘조는 통영에서 행해진 연합 조련으로 합조 혹은 통영합조라고 하였고, 추조는 도별로 앞바다에서 행하는 개별 조련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해방체제가 기동항해전술체제로 바뀌었고, 이를 위해 통제영이 설치되고 삼도수군의 합조가 시행되었다.

수군합조의 절차와 훈련 陣形에 대해서 수록한 주요 병서로 『병학지남』, 『병학통』, 각종 수조호기록이 있다. 국립진주박물관 소장 <통제영 수군조련도>는 이 가운데 『병학통』의 「통제영 수조도」편에 있는 ‘삼도주사첩진도’의 진법도를 그린 것임을 밝혔다. 선단의 營·司·哨의 배치와 편제에서 『병학통』에 수록된 진법도의 도식과 일치한다는 점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국립진주박물관의 <통제영 수군조련도>에 그려진 군선과 의장물의 도상 분석을 통해 이들이 현존하는 해당 유물과도 일치하고 일부는 『속병장도설』과 『이충무공전서』에 수록된 도식과도 일치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거북선의 표현은 『이충무공전서』에 수록된 전라좌수영 거북선의 도상을 바탕으로 그렸는데, 통제영 거북선이 따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좌수영 거북선을 택하여 그린 이유는 이순신에 대한 숭모의 뜻을 담고자 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국립진주박물관의 <통제영 수군조련도>에 묘사된 인물 표현과 파도문, 채색감감은 주로 18세기의 회화 양식과 연결되어 이 그림이 『이충무공전서』 간행 이후에 제작된 19세기의 작품이지만 일부 화풍 상의 보수적 성향을 감안할 때 19세기 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국립진주박물관 소장 <통제영 수군조련도>가 대형의 병풍에 그린 채색화로써 水營 공관을 장식하고, 陣形圖를 숙지하는 한편, 軍備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군사조련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 용도를 짚어 보았다. 또한 통영합조에 대한 『승정원일기』와 『비변사등록』 중의 기록을 검토하여 삼도 수군의 합조가 거의 시행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고, 따라서 이 그림이 실제 행해졌던 훈련의 모습을 담은 기록화가 아닌 삼도수군 선단이 모두 집결했을 때의 완성된 진형을 제시한 개념도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통제영 수군조련도>가 19세기 들어서 제작되기 시작한 배경으로는 이 무렵 지방관의 행차나 지방관이 주도한 행사를 담은 그림이 해당 지역의 실제 경관을 배경으로 그려지기 시작한 움직임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동래부에 도착한 일본 사신들을 맞이한 행사를 그린 <동래부사접왜사도>와 평양 감사가 참석한 향연 행사를 그린 <평양감사향연도> 등의 작품과 같은 맥락에서, 통영의 대표적인 행사인 통영합조가 그려졌을 가능성을 추정한 것이다. 통제사가 참석한 수군 선단의 항행 장면이 화려하게 묘사되었던 것도 이 무렵 지방관의 행차 모습이 적극 묘사되었던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국립진주박물관의 《통제영 수군조련도》를 주문한 사람은 통제사 그리고 그림을 그린 사람은 화사군관 혹은 ‘통영 12공방’ 중의 화원장방 소속 화공이었을 가능성을 짚어보았다. 이들은 긴밀한 협조와 영향 관계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크며, 국립진주박물관의 《통제영 수군조련도》에 드러나는 다소 보수적인 회화 양식은 이러한 제작 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통제영수군조련도》는 넓은 의미에서 ‘전쟁미술’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미술사 분야에서 다루지 않았던 《통제영수군조련도》라는 주제 연구를 통해 전쟁미술의 범주를 넓히게 되었다. 《통제영수군조련도》는 일제강점기와 해방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 연구를 기약하고자 한다.

*주제어(Key Words) 統制營水軍操鍊圖(Painting of Tongjeyeong Naval Drill), 水軍(Navy), 操鍊(Military drill), 合操(Joint military drill), 統營(Tongyeong), 統制營(Tongjeyeong), 龜船(Turtleship), 거북선(Turtleship), 兵學通(Byeonghaktong), 李舜臣(Yi Soonshin), 陣形(Military Formation), 海陣圖(Painting of Warships in Formation), 화사군관(Academy Painters dispatched to Naval Forces), 통영 공방(Twelve Workshops of the Naval Command Headquarters)

■ 투고일 2013년 5월 21일 | 심사개시일 2013년 10월 11일 | 심사완료일 2013년 12월 19일 ■

참고문헌

1. 사료

- 『各船圖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兵學通』,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統營志』(奎10876),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統營誌』附事例(奎12186),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水操笏記』(古9940),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國譯 息城君實記』, 지강서원, 1991.
李殷相 譯, 『國譯註解李忠武公全書』上·下, 충무공기념사업회, 1960.

2. 단행본

- 金一龍, 『統營文化院 郷土史叢書 第12輯: 통영향토사 연구 논문집』, 통영문화원, 2011.
김재근, 『조선왕조군선연구』, 서울대학교한국문화연구소, 1976.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일지사, 2000.
方相鉉, 『朝鮮初期 水軍制度』, 민족문화사, 1991.
李鉉淙, 『朝鮮前期 對日交涉史 研究』, 한국연구원, 1964.
張學根, 『朝鮮時代海洋防衛史研究』, 해군사관학교, 1987
정병모, 『민화, 가장 대중적인 그리고 한국적인』, 돌베개, 2012.
정혜은, 『한국 전통병서의 이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_____, 『한국 전통 병서의 이해(II)』,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조윤주, 『명품명장 통영12공방 이야기』, 디자인하우스, 2009.

3. 논문

- 김도형, 「1930년대 ‘이충무공유적보존운동’의 전개와 그 성격」, 『이순신연구논총』 제15호, 2011.
김병륜, 「조선시대 水軍 진형과 함재 무기 운용」, 『군사』 74, 2010.
김우진, 「18세기 경상좌수영 군례약 연구(1)-규장각 소장 水操笏記에 대하여」, 『한국음악사학보』 49권, 한국음악사학회, 2012.
김재근, 「우리배의 역사9: 판옥선(2)」, 『해양한국』 1984권 7호, 한국해사문제연구소, 1984.
_____, 「板屋船考」, 『한국사론』 3권, 1976.
_____, 「三道舟師都分軍圖에 대하여」, 『대한민국학술원논문집』 37, 1998.9.

- 나중우, 「조선수군의 무기체제와 전술 구사」, 『한일관계사연구』, 1999.
- 노승석 국역, 「수군조련[水操]」, 『이순신연구논총』 통권 제12호,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09년 가을/겨울.
- 노영구, 「朝鮮 增刊本 『紀效新書』의 체제와 내용」, 『軍史』 36, 1998.
- _____, 「正祖代 兵書 刊行의 背景과 推移」, 『藏書閣』 제3집, 2000.
- _____, 「조선후기 군사 조련의 기본서 『兵學指南』」, 『정조대의 예술과 과학』, 문헌과 해석사, 2000.
- _____, 「『兵學指南』에 나타난 조선후기 水軍의 전투훈련」, 『문헌과 해석』 23, 2003.
- _____, 「역사 속의 이순신 인식」, 『역사비평』 69, 2004.
- 文智成, 「통영 총렬사 久賜品에 대한 고찰(上)」, 『중국어문학논집』 71호, 2012.
- 박은순, 「19세기 회화식 군현지도와 지방문화」, 『한국고지도연구』 제1권 제1호, 2009.
- 배중석, 「매천 황현의 이충무공 귀선가」, 『이순신연구논총』 제14호,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0, 가을/겨울.
- 송기중, 「17世紀 水軍防禦體制의 改編」,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_____, 「17世紀 水軍防禦體制의 改編」, 『朝鮮時代史學報』 53, 朝鮮時代史學會, 2010.
- _____, 「17~18세기 전반 水軍役制의 운영과 변화—『兩南水軍變通節目』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76, 2011.
- 申楠旻, 「東萊府使接倭使圖屏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柳永博, 「三道舟師都分軍圖:新史料辨證」,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1970.
- _____, 「三道舟師都分軍圖論攷」, 『문화재』 6호, 문화재관리국, 1972.
- 윤열수, 「文字圖를 통해 본 民畫의 地域的 特性과 作家 研究」,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 李敏雄, 「17~8세기 水操 運營의 一例 考察—규장각 소장본 慶尙左水營 『水操笏記』를 중심으로—」, 『軍史』 38, 1999.
- 이은호, 「임진왜란 직후 조선의 대일 방어대책과 水軍」,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이현주, 「朝鮮後期 統制營 畫員 研究」, 『石堂論叢』 제39집, 2007.
- 李助相, 「조선후기 지방 과전 화원들과 그 제도, 그리고 이들의 지방 형상화」, 『東方學志』 144, 2008.
- 장원주·최형국, 「18세기 末 전라도 水軍戰法 變化의 특성—전라우수영 『戰陣圖帖』과 전라좌수영 『水操笏』을 중심으로」, 『武道研究所誌』 제22집 제1호,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2011.
- 張元柱, 「17세기 朝鮮의 海防體制와 水操運用」,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2.
- 張學根, 「조선후기 水操와 防衛船團編制」, 『단국대학교대학원학술논총』 9, 1985.
- _____, 「水操에 나타난 이순신 전술—기동함해(尖子陣)와 전투진형(鶴翼陣)을 중심으로」, 『이순신연구논총』 제12호,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09, 가을/겨울.
- 정진술, 「조선 水軍의 戰術신호 체계에 대한 연구」, 『海洋研究論叢』 38, 2007.
- 제장명, 「조선시대 화포의 발달과 水軍의 총통 운용」, 『해양戰略』 132, 2006.
- _____, 「임진왜란 시기 이순신의 해전술(海戰術)과 귀선(龜船)의 역할」, 『이순신연구논총』 9호, 2007, 가을/

겨울.

許善道, 「〈陣法〉考—書名〈兵將圖說〉의 잘못을 바로 잡음—」, 『역사학보』 47, 1970. 10.

4. 도록

- 『국립진주박물관 임진왜란』, 국립진주박물관, 1997.
『새롭게 다시 보는 임진왜란』, 삼화출판사, 1999.
『조선시대 기록화의 세계』, 고려대학교박물관, 2001.
『朝鮮時代 風俗畫』, 국립중앙박물관, 2002.
『충무공 이순신-삶에서 신화까지』, 국립진주박물관, 2003.
현충사관리소 편, 『충무공과 현충사』, 현충사관리소, 2007.
『궁궐의 장식그림』, 국립고궁박물관, 2009.
『충무공 이순신과 임진왜란』,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2011.
『임진왜란 7주갑 특별기획전, 임진왜란』, 부산박물관, 2012.
『한국의 도교 문화』, 국립중앙박물관, 2013.

국문초록

《통제영 수군조련도》는 통영에서 행해졌던 충청·전라·경상 3도 수군의 합동 군사훈련의 장면을 그린 그림을 말한다. 현재 20점 이상의 《통제영 수군조련도》가 국내에 남아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통제영 수군조련도》에 대한 연구의 첫 단계로서 제작 시기가 가장 이르다고 판단되는 국립진주박물관 소장 《통제영 수군조련도》(덕2783)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 수군은 매년 봄·가을에 조련을 시행하였다. 수군합조의 절차와 훈련 陣形에 대해서 수록한 주요 병서로 『병학지남』, 『병학통』, 그리고 각종 수조흘기류가 있다. 국립진주박물관 소장 《통제영 수군조련도》는 이 가운데 『병학통』의 「통제영 수조도」편에 있는 ‘삼도주사첩진도’의 진법도를 그린 것이다. 船團의 營·司·哨의 배치와 편제에서 『병학통』에 수록된 진법도의 도식과 일치한 점에서 알 수 있다. 또한 국립진주박물관의 《통제영 수군조련도》에 그려진 군선과 의장물의 도상 분석을 통해 이들이 현존하는 해당 유물과도 일치하고 일부는 『속병장도설』과 『이충무공전서』에 수록된 도식과도 일치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립진주박물관의 《통제영 수군조련도》에 묘사된 인물 표현과 파도문, 채색감감은 주로 18세기의 회화 양식과 연결되어 이 그림이 적어도 『이충무공전서』 이후에 제작된 19세기의 작품이지만 일부 화풍 상의 보수적 성향을 감안할 때 19세기 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국립진주박물관 소장 《통제영 수군조련도》가 대형의 병풍에 그린 채색화로써 水營 공관을 장식하고, 陣形圖를 숙지하는 한편, 軍備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군사조련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 용도를 짚어 보았다. 또한 이 그림이 실제 행해졌던 훈련의 모습을 담은 기록화가 아닌 삼도수군 선단이 모두 집결했을 때의 완성된 진형을 제시한 개념도임을 밝혔다. 《통제영 수군조련도》가 19세기 들어서 제작되기 시작한 배경으로는 이 무렵 지방관의 행차나 지방관이 주도한 행사를 담은 그림이 해당 지역의 실제 경관을 배경으로 그려지기 시작한 움직임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국립진주박물관의 《통제영 수군조련도》를 주문한 사람은 통제사 그리고 그림을 그린 사람은 화사군관 혹은 ‘통영 12공방’ 중의 화원장방 소속 화공이었을 가능성을 짚었다.

Abstract

**“Tongjeyeong Naval Drill,” the Paintings of Warships Engaged
in Military Drill from Late Joseon**

Yu, Mi-Na *

The Tongjeyeong Naval Drill Paintings are a series paintings depicting scenes of military exercises conducted on the seas off modern-day Tongyeong by naval forces of Joseon(1392-1910) under Tongjeyeong, the Navy Command Headquarters of three provinces, Chungcheong, Jeolla and Gyeongsang. While there are currently 20 such paintings remaining in Korea, this study focuses on one specific painting housed in the Jinju National Museum under the acquisition number “Deok 2783” which is presumed to be the oldest discovered so far.

After the Imjin Wars, which lasted for seven years following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 the Joseon government had its naval forces conduct military drills twice a year, every spring and autumn, as recorded in several old military books such as *The Orientation to the Military Arts*(Byeonghakjinam) and *Book of the Military Arts*(Byeonghaktong). The painting in the Jinju Museum collection is clearly a copy of the disposition of troops illustrated in the second book, as shown by identical positions and formations of troops captured in the two paintings. Studies on the battleships and ceremonial weapons and colors depicted in the Tongjeyeong Naval Drill painting in the museum’s collection reveal that they correspond to the materials remaining today and to those illustrated in *The Revised Battle Formations with Illustrations*(Sokbyeongjangdoseol) and *Collected Writings of Lord Yi Sun-sin*(Ichungmugong Jeonso). The depiction of human figures and the use of colors and wavy patterns in the painting exhibit an influence from 18th century paintings, but the fact that

* Wonkwang University

it was published after *Collected Writings of Lord Yi Sun-sin* suggests that it was produced during the early 19th century.

The painting rendered in colors on paper was mounted on a large folding screen. The study deals with the purpose of the painting coming to the presumption that the painting was placed in the naval commander's office, and was intended to help the naval leaders be always aware of military formations, and stay alert to war preparation. It concludes that the painting was not produced to record a drill that had actually taken place but rather to present an artist's rendering of a model formation expected to be deployed when the entire naval forces of the three provinces were mobilized. The popularity of the painting in the 19th century is related to the artistic movement that was devoted to depicting actual landscapes when paintings were ordered to mark important activities conducted by local administrators. Finally, it is conjectured that the naval drill painting in the Jinju collection was commissioned by the then Commander-in-Chief of the Naval Forces of the South(Tongjesa) and was created by academy painters dispatched to the Naval Forces, or by artists working for the Twelve Workshops of the Naval Command Headquarters.